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공시위반 논란

자본시장통합법상 5% 이상 대량보유 땀 신고 의무
2월 취득분, 법규위반 해당... '의결권 제한' 새 변수로
(지분 5.25%)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면서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에 명시된 대량 보유(5%) 현황 신고 의무 조항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량 보유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 이번 법률 조항 논란이 향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월 삼성물산 주식 773만2779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취득 사실을 지난 4월 삼성물산 주식 339만3148주를 추가 취득하면서

지분이 7%가 넘어섰다고 전자공시를 통해 밝혔다.

문제는 엘리엇이 공시하기 4개월 전인 지난 2월 취득분에 대한 대량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등에 배포한 공시 매뉴얼에는 대량 보유 기준을 산출할 때 법률상의 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 통주에 취득 주식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대로라면 엘리엇의 지난 2월 취득분은 삼성물산 발행 보통주의 4.95%가 돼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감원의 매뉴얼은 자본시장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통합법 제147조는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량 보유 기준인 5%는 총리령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다. 또 총리령(17조 2항)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수에 취득한 자의 주식수 비율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취득한 773만2779주는 삼성물산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의 5.2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량 보유에 대한 신고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제한뿐만 아니라 추가 취득분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처분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은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엘리엇이 지난 2월 삼성물산 주식 773만2779주를 취득하면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취득 사

실을 신고하고 공시를 해야 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작성한 매뉴얼이 아닌 상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어야 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리 상으로는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대량 보유 기준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도 "취득 시점에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힘들어 대량 보유 산정 기준 및 산출 방법을 규정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엘리엇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 측에 연락해 자본시장법상 5%를 위반 여부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엘리엇이 시간 벌기에 나서기 위한 가져본심청에 들어간 것으로도 파악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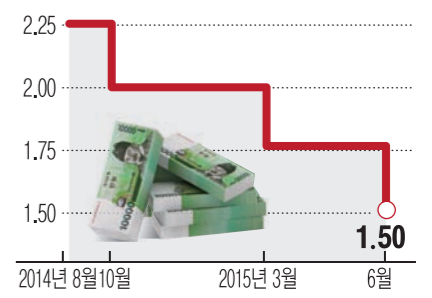
현유진·김경아·최영민 기자 hyson0214@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3개월만에 내려 年1.50%로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6월 기준금리를 전달보다 0.25%포인트 낮은 연 1.50%로 인하였다.

이 총재는 지난해 4월 취임한 후 그해 8월,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어 올 3월에는 깜짝 인하를 단행해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열었다. 이 총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석 달 만인 이달에도 금리 인하 광풍 행보를 이어갔다.

앞서 그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자산시장 회복, 심리 개선 등을 중점 거론하며 사실상 금리인하 시그널을 끈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생산, 수출, 고용 등이 정부의 전방위적 경기부양책과 한은의 과격 금리인하에도 모두 부진한 양상을 지속했다. 특히 회복 조짐을 보인 소비가 중동호흡기후증(메르스) 확산으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이에 따라 이 총재는 경기진작뿐 아니라 메르스 복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 금리인하라는 '백신'을 투약했다.

정부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 1-2차례 추가 인하를 주장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HO 평가단, 메르스 현장 조사



중동호흡기후증(메르스)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세계보건기구 합동평가단이 10일 서울 삼성병원을 찾아 감염 관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대표 해임' 뒤 승승한 대우인터내셔널 고강도 관세조사 '내우외환'

포스코그룹 주력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미얀마 가스전 매각 문제를 놓고 포스코그룹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세조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동종업계와 대우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세관 조사국 요원들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에 파견, 수입입관의 일

정으로 관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조사란 국제적 세무조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는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관세조사는 정기조사 성격이 아닌 비정기조사 성격이 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관이 대우인터내셔널 수출입 현황과 관련, 수많은 품목 가운데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대해 관세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조사 외에도 다른 품목에 대한 조사 확대 가능성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검찰 고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관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1개 품목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2010년 당시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해외 자원개발 전문업체인 대우인터내셔널을 3조4000억원에 인수한 후 MB 정부의 자원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등 MB정부가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광구 10여 곳의 지분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원사업 모두 부실투자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니켈 광산 프로젝트는 함께 투자했던 다른 기업들은 손실을 막으려 지분을 매각한 반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수천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올해 초 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포스코그룹 계열사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포스코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 과정에서 과거 정권 시절들의 이권 개입 등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우인터내셔널 또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관측한다.

김연수 기자 tearand76@

경제는 심리다

국민들 메르스 '괴영 공포'가 경기침체 불리
일상으로 돌아가 위축된 소비심리 살려야

#국내 중동호흡기후증(메르스) 공포증이 극에 달하면서 지난 10일까지 방문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이 7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상하이에 있는 외국 대형 크루즈선이 9월 말까지 제주항, 부산항, 인천항 등 한국 기항지에 입항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기간 약 19만명(지난해 들어온 크루즈 선박 규모 대비 80%)의 크루즈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해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피해 규모는 크루즈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금액 117만원을 곱하면 2223억원 정도다.

메르스 진행 기간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		
유형	1개월 이후 진행시	3개월 이후 진행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	0.15%p 하락	0.8%p 하락
2~3분기 전망치	0.5%p 하락	3.0%p 하락

*출처: 모건스탠리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메르스 격리자가 3500명을 넘어서면서 메르스 공포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메르스 공포로 약 2500곳의 초·중·고교, 유치원이 휴업했고 병원을 비롯한 극장, 백화점, 놀이공원 등 사람이 몰리는 곳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메르스 괴담과 소문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괴영 대응으로 경기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민의 공포감은 심리적 문제가 크며 사실상 일상으로 돌아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간신히 살아나려는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현 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추도 분위기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민간 경제가 1조8000억원가량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약 0.2%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가 세월호 때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모건스탠리는 메르스 확산이 3개월 지속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8%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과거 사스가 유행하던 시기의 중국과 홍콩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2.9%포인트, 4.5%포인트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메르스 사태로 4% 수준의 성장을 둔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괴영 불안의 심리적 문제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어 경제주체인 국민이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괴영 공포로 말미암은 경제의 괴영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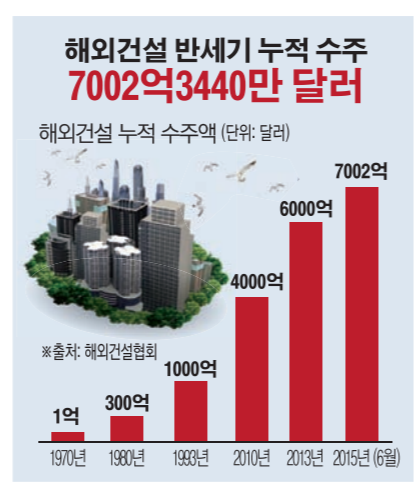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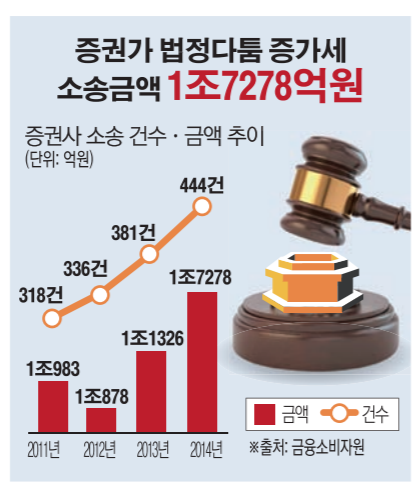
신동민 세종취재본부장 lawsdm@

데이터 뉴스 Data News

증권사 소송 몰살...작년 400건 넘어

증권사의 법적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증권사 58곳과 관련한 소송 건수와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각각 444건, 1조72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소송 건수는 △2011년 318건(12월 기준) △2012년 336건(3월) △2013년 381건(3월)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해외건설 50년...수주 7000억 달러

국내 건설사들이 1965년 해외건설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지 50년 만에 수주 누적액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해외건설협회에 신고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총 6995억4032만7000달러다. 삼성물산이 최근 수주한 호주 시드니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 1단계 도로공사 6억9407만 달러를 합하면 누적 수주액은 7002억3439만7000달러가 된다.

박태진 기자 tipippo@

하루 한생각 顛沛匪虧 (전패비虧)

아무리 위급한 경우라도 잘 대처를 ▶14년

글로벌 이슈 ▶18~19

美 금리인상 딜레마

김동현 회장 ▶2

이원준 대표 ▶13

글로벌 리더 ▶21

케빈 파이기 마블 CEO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조양호의 2년...“그룹 재건, 고지 다왔다”

〈한진그룹 회장〉

에쓰오일 지분 매각 성공에
한진해운 무보수 경영 실효
대한항공-한진해운 자구안
각각 85%~98% 이행률 높아

이행항목 (규모)	이행 현황
S-OIL 지분 매각(22,000억원)	19,800억원
B-747-400 등 13대 매각(2,500억원)	700억원
대한항공 기타(10,400억원)	9,300억원
합계(이행률)	34,900억원 29,800억원(85%)
자산 매각 및 외부자금 조달 (15,305억원)	13,243억원
한진해운 금융단 지원(4,440억원)	4,042억원
합계(이행률)	19,745억원 19,285억원(98%)

※자료: 한진그룹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최근 2년간 매달려온 그룹 재건 경영이 실효를 드러내고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12월 마련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해 직접 현장을 돌면서 자금에 사달리던 한진해운을 과감히 뜯기도 했다. 조 회장의 적극적 노력으로 대한항공, 한진해운 모두 자구안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1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고강도 자구안의 이행 실적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이 2013년 12월 말 마련한 자구안의 목표 자금은 3조4900억원. 계획안에는 에쓰오일 지분 3000만주 매각(2조2000억원)과 B-747-400 등 노후 항공기 13대 매각(2500억원), 인천 울도 비축유기

등 매각(1조4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우선 속도를 내지 못했던 에쓰오일 지분 매각 작업은 올 들어 최대주주 아랍코가 인수하면서 1조9800억원이 확보됐다. 이는 조 회장이 월 칼리드 알 팔리 아랍코 총재를 직접 만나 협상을 이끌어낸 결과다. 노후 항공기 2대도 매각해 700억원을 마련했으며, 올 초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성공리에 마쳤다. 이 외에 한진해운 홀딩스 지분을 매각해 200억원, 항공기 엔진의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를 통해 4100억원을 확보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금까지 마련한 자금은 총 2조9800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96%에서 올해 1분기 75%까지 줄었다. 부채비율을 크게 줄이지 못한 것은 신규 항공기 도입 때문으로, 부채비율을 올해까지 400%대로 낮추기로 한 계획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여파로 영업부진,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환

산 손실액 4000억원 발생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줄지 않았다"며 "성수기인 하반기에는 여유가로 인한 비용 감소 등에 따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역시 자구안 이행률이 98%에 달해 고지가 목전이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벌크전용선사업부를 넘기며 3000억원을 확보했고, 터미널 유통화를 통해 1605억원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노후 선박 등 자산 매각(1365억원)은 물론 유상증자(4000억원)와 자금 조달을 통해 전체 자구안 규모인 1조9745억원 중 1조928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한진해운은 부채비율도 크게 줄었다. 2013년 당시 1400%를 훌쩍 넘었던 한진해운 부채비율은 지난 1분기 기준 91.9%로 약 500%포인트 줄었다. 여기에는 조 회장의 결단이 한몫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해운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중 일부(15.36%)를 담보로 한진해운에 150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한진해운을 인수하며 "한진해운 독자전환 전까지 연봉을 받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한진해운은 1년 만에 독자전환에 성공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SKT 지분 다시 취득 최신원 회장 속내는...

〈SKC〉

최신원(사진) SKC 회장이 SK텔레콤을 또 다시 취득했다. SK텔레콤 주식을 전량 매도한 지 5개월 만의 취득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SK텔레콤 주식 1067주를 취득했다.



전량 매도한지 다섯달 만에
1067주 확보 오너家중 최다
그룹 계열분리 추진 신호탄?
"SK브로드 교환 지분" 해명

이에 따라 최 회장은 SK그룹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은 SK텔레콤 주식을 소유하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기준 SK텔레콤의 주식 100주를 갖고 있다. 최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형으로 고(故) 최종건 SK 창업주의 장남이다. 최 회장의 이번 SK텔레콤 주식 취득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1월 최 회장이 소유 중이던 SK텔레콤 주식 전량(4000주)을 내다 팔며 SK텔레콤에서 손을 뗐기 때문이다. 이번 최 회장의 SK텔레콤 지분 취득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하며 SK브로드밴드의 주식을 갖고 있던 최 회장의 지분이 SK텔레콤 주식으로 교환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말 기준 SK브로드밴드 주식 6만3176주(지분율 0.02%)를 소유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지분을 100%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자사주와 SK브로드밴드 주주들의 주식을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 SK브로드밴드의 잔여 지분을 전량 취득했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의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0.0168936으로 책정됐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 주식 매수를 마무리 지었으며 SK브로드밴드는 오는 30일 상장폐지된다. 회사 관계자는 "최 회장이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지분 취득으로 SK브로드밴드 주식을 갖고 있다"고 SK텔레콤 주식으로 교환한 것이며, 이 부분이 공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SK그룹 계열 분리 등을 위한 지분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이번에 취득한 SK텔레콤 주식을 또 다시 매도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SKC 관계자는 "주식 매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경영을 도맡아오던 SKC와 SK텔레시스 대표 자리에서 지난 3월 물러났다. 회장직은 유지하나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며 회사 정상화에 힘을 실어주고 투병경영을 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SKC는 최 회장과 박장석 부회장, 정기봉 사장 3인 공동대표체제로 정 사장이 이끄는 단독대표체제로 전환했다. SK텔레시스는 안승운 대표이사가 경영을 맡는다. 김유진 기자 eugene@

부광약품 김동연 '주식 선물' '2천만원 차이' 직원들 웃음꽃



4년전 안트로젠 40만주 양도

김동연(사진) 부광약품 회장의 임직원 사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4년 전 부광약품이 보유하고 있던 관계회사 안트로젠 주식 일부를 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는데, 당시 약 12억원에 불과했던 주식 가치가 7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임직원들이 최대 2000만원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부광약품 직원 평균 연봉이 4400만원(지난해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보너스'를 받은 셈이다. 11일 부광약품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11년 8월 보유하고 있던 안트로젠 주식 40만주를 550명에게 달하는 전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무상 배정했다. 회사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과장·차장·부장 등은 1000주씩, 사원·대리는 715주씩 받았다. 김 회장이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준 것에 대해 직원들은 "사실상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는다. 다만 임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한 장려금 성격이 강했다는 것. 실제 김 회장은 평소에도 "직원들과 함께 해야 회사가 갈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해 왔다고 한다. 당시 안트로젠은 장부 가치가 3000만 미만에 불과했지만, 현재 장의 시장에서는 2만원에 거래될 만큼 회사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특히 올해 중으로 기술성 평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어서 주식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2011년 당시 회사로부터 안트로젠 주식 1000주를 받은 직원은 세금으로 40만원 정도를 납부한 게 다였다"면서 "이 직원이 넘겨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외 시세인 2만원을 기준으로 2000만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안트로젠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벤처 기업으로, 부광약품이 24.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강인호 기자 kangih@


유증 끝낸 롯데손보 김현수 1500억 실탄 '수익 강화' 조준



RBC비율 190% 목표 체질개선

김현수(사진) 롯데손해보험 사장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지급여력(RBC) 비율을 약 50%포인트 끌어올려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배정과 일반공모청약을 통해 청약률 100%를 기록, 총 1507억5000만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롯데손보는 총 6700만주를 발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우리사주조합 청약 1333만5474주, 구주주 청약 5328만40001주, 일반공모 청약이 38만525주다. 주당 발행가는 2250원이다. 특히 롯데손보의 대주주이자 롯데그룹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인 호텔롯데, 부산 롯데호텔, 대흥회 등 3개 계열사가

유상증자 신주 중 51.3%에 달하는 3437만주 청약에 참여했다. 유상증자 금액은 320억원 규모다. 이후 진행된 일반공모 청약자 대상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에는 1억6581만9175주가 몰려 435.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초 취임한 김 사장은 롯데손보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하자 2012년 후 3년 만에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올해 3월말 기준 RBC비율이 권고비율 미달 수준인 140.1%를 기록했다. RBC비율이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했으나 금감원에서는 150%를 권고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보된 자금 전액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의 RBC비율은 190%대 초반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만정 기자 imj@



교통질서도 가족의 행복도!

문제1. 네모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자동차에 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안


전


띠

를


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KCC 지원사격에 자통법 위반 논란까지... 엘리엇 기세 꺾일까

〈주식 대량보유 신고 5%를〉

엘리엇 위반 논란 '5%룰' ... 법과 실무 규정 충돌

국내 상장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규정과 금융감독원의 실무 매뉴얼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와 같은 충돌 논란이 표면화되고 있다.

자통법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서 취득한 주식비율이 5%가 넘을 경우에는 반듯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이 쓰고 있는 실무매뉴얼에는 의결권이 없는 회사의 자기주식까지 포함한 보통주 기준 발행주식 총수에서 취득한 주식 비율로 5%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엘리엇이 지난 2월 취득한 삼성물산 주식 773만2779주에 대한 자통법상 규제된 대량보유 5%를 적용 여부다. 우선 금감원 실무매뉴얼에는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까지 포함한 발행 보통주 총수와 취득 총수로 5%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보통주 총수 1억5621만7764주의 4.95%로 5%이하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규정을 적용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 773만2779주를 취득할 당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이 899만557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는 1억4722만7207주가 된다. 이에 따라 엘리엇의 삼성물산 2월 취득분은 5.25%가 나온다.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이다.

법규정상 자사주 제외 의결권 주식만 실무 매뉴얼선 '의결권 없는 주식'까지 금감원 "자사주 실시간 파악 어려워" "당국 스스로 관련 법 무력화" 빈축

삼성, 엘리엇 자통법 저촉 문제삼아 의결권 제약 가처분 등 역공 가능성

자본시장법 147조 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147조 2항은 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총리령 17조 2항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대량 보유하게 된 날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를 합쳐 계산한 수로 한다고 뜻을 밝히고 있다.



따로 노는 대량보유 5%를 산정 기준

자본시장통합법 규정	금감원 실무 매뉴얼
취득 주식 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수	취득 주식 수 의결권 없는 자사주 포함 발행 보통주 총수
147조 1항,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0(5%) 이상인 경우가 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147조 2항, 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 총리령 제17조 2항, 주식 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등의 총수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대량보유하게 된 날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를 합쳐 계산한 수로 한다.	"자사주 실시간 파악 어려워 관련 규정 적용 현실적으로 힘들다"

수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총리령 17조 2항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대량 보유하게 된 날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를 합쳐 계산한 수로 한다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량보유 5%를 산정할 때 총리령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3가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내놓은 실무상 어려움은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이 투자자들의 투자시점에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

들다. 또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계열사간 상호간 출자 지분도 적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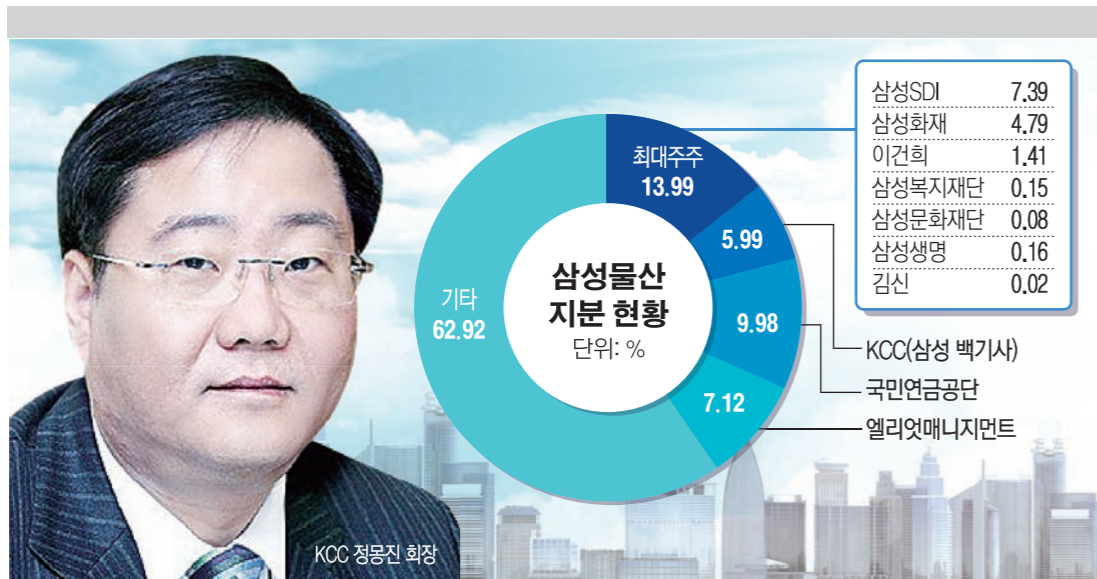
금감원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보면 (5% 적용시) 자사주를 제외하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행 5% 산정 기준 법률 조항이 실무매뉴얼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오래전부터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실무 매뉴얼이 총리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로부터 공적으로 대량보유 신고 의무 기준에 자사주를 포함해 법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등은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위 실무상 매뉴얼이 상위 법률상 규정을 무시하고 사용되고 있는 등 법체계상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집행 법률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내놓고 있다.

한편 삼성측이 엘리엇의 5%를 적용 논란을 역공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측이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 취득 과정이 자통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제약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통법은 대량보유 신고 의무 위반할 경우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추가 취득분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유섭·조남호·김경아 hyson0214@



삼성물산, 자사주 전량 KCC에 매각키로

'돌아온 백기사' 정몽진 회장

KCC 정몽진 회장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에 반대를 걸고 있는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매입, 다시 한번 삼성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엘리엇 측이 이를 놓고 불법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해 정 회장도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반대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위기에 처하자 정 회장은 도움을 손길을 내민 것. 정 회장은 앞서 2011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당시에도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매입해 백기사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은 이날 삼성물산 증가인 주당 7만5000원으로 6743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KCC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5.99%로 늘어나고 삼성물산의 우호지분은 20% 가까이 늘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지분으로, 그동안 삼성물산은 자사주 매각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자사주를 전격 처분함으로써 우호지분은 13.99%에서 19.95%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은 "KCC를 선택한 것은 사업간 시너지와 순환출자를 피하고 합병 시 필요한 주식매수청구권 매입 자금 마련에 있다"며 "우호적 지분 확대를 통한 원활한 합병 진행 및 유동성 확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병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지속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CC는 앞서 지난 8일 삼성물산 주식 0.2%, 약 230억원 어치를 시장에서 매입했다. KCC는 지분 매입이

후 추가 매입이 없다고 밝혔지만 만일의 경우 KCC가 다시 한 번 백기사로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다.

KCC는 이번 백기사 역할 외에도 2011년 12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당시 매각 난항이 예상됐던 삼성카드의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KCC는 제일모직 지분 25.64%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42만5000주를 7739억원에 매입했다.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KCC는 이 회사 지분 2125만주를 보유하게 됐으며 이후 제일모직이 상장할 때 공모가 5만3000원에 750만주를 매각해 약 1241억원의 이익을 실현했다. 잔여 지분 10.18%를 보유한 KCC는 제일모직의 2대주주로 있으며 4년째 삼성과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KCC가 보유한 지분의 평가치액은 2조 원에 가깝다.

재계는 이러한 관계를 볼 때 삼성이 KCC를 믿을 수 있는 투자자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삼성이 확실히 믿고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 투자자로 KCC만한 곳이 없었을 것이란 평가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 회장의 삼성물산 자사주 취득이 또 한번의 주식투자 대박으로 이어질지도 관심거리다. 정 회장은 2008년 옛 계열사 만도를 되찾으려는 한라그룹의 백기사로 나선 바 있다. 당시 KCC는 2670억원을 투자해 만도의 2대주주가 됐으며, 만도의 재상장과 지분 처분을 통해 3년간 5140억원가량을 벌어들였다.

한편 정 회장의 삼성물산 자사주 취득이 또 한번의 주식투자 대박으로 이어질지도 관심거리다. 정 회장은 2008년 옛 계열사 만도를 되찾으려는 한라그룹의 백기사로 나선 바 있다. 당시 KCC는 2670억원을 투자해 만도의 2대주주가 됐으며, 만도의 재상장과 지분 처분을 통해 3년간 5140억원가량을 벌어들였다.

조남호 기자 spdran@



KB금융그룹

KB국민카드 청춘대로

각도에 따라 4가지 컬러로 보이는 카드 플레이트

내 멋대로, 내 맘대로
KB국민 청춘대로카드

홀릭's Choice 서비스
(전월 실적 30만원/60만원 이상 시 제공)

- 쇼핑홀릭(인터넷쇼핑/소셜커머스) 10% 청구할인, 해외이용 5% 캐시백
- 푸드홀릭(음식업종 5% 청구할인)

홀릭's Basic 서비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제공)

- 커피홀릭(커피/제과 5~10% 청구할인)
- 데일홀릭(대중교통, 택시 10% 청구할인)
- 핀홀릭(영화(맥스무비), 주요 놀이공원 현장할인)
- 스타일홀릭(뷰티 업종 5% 청구할인, 올리브영 10% 청구할인)
- 모바일홀릭(3대 영역 앱카드(Kmotion) 결제시 5% 청구할인)
- 리워드홀릭(연간 7백만원 이용 시 리워드(포인트) 1만원 제공)

연체료를 연 22.9%~29.3%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이용 전 확인사항

- * KB국민 청춘대로카드 연회비는 K-World 1만 5천원, Master 2만원입니다.
- * KB국민 청춘대로카드의 상품별 서비스 제공조건(할인제외대상 등)이 존재하며,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KB국민 청춘대로카드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심의결 제1485호 (2015.5.19 기준)

국민생활의 힘
KB국민카드

‘메르스’ 비상

“3차 유행 차단이 관건...위기관리 소통 시스템 손질해야”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보건당국이 위기관리 시스템을 손질해야 3차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슈퍼 전파자들을 면밀하게 관리해 3차 유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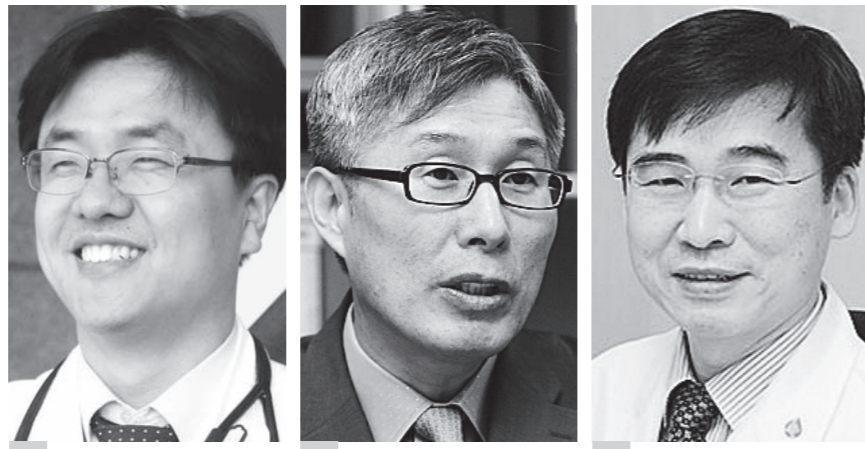
이투데이가 감염내과 및 바이러스 전문가들에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식,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 등 전반적인 조언을 들어왔다.

먼저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현재 패턴은 병원 중심으로 확산해, 병원 내 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병원 보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르스 환자 일반 환자가 섞이지 않게 보건당국과 병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메르스 국내 첫 감염환자가 30명 이상 감염시 1차 유행을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2차 유행이 발생했다”며 “지난 10일 몇 개 병원이 위협에 노출돼 3차 유행 가능성도 생겨났다. 이번 상황에서 메르스 전파가 확산될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드러냈다. 보건당국과 지자체, 전국 병원들의 소통과 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교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병



이재갑 한림대 교수

설대우 중앙대 교수

김우주 감염학회 이사장

정부·병원 소통 절실

낙관도 비관도 못해

정부 초기대응 미흡

잘못된 정보 공개 팬

슈퍼전파자 모니터링

국민 적극적 협조가

또다른 피해 확산도

지금이라도 철저히

사태 종식에 큰힘 돼

원들과 정부가 현재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오늘도 정부에서 몇 개 병원을 안전병원, 치료병원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지정된 사실조차 몰라 준비가 덜 된 병원도 있었다”며 “지자체 및 병원들과 조율이 안 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러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면 환자들의 동선은 꼬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슈퍼 전파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염병 및 바이러스 전문가인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병원 공개나, 지자체 협업 등의 대응이 좀 더 빨랐다면, 사태는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슈퍼 전파자들을 면밀하게 관리해 3차 유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그는 “지금 메르스 사태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정 국면 진입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3차 유행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앞선 상황처럼 슈퍼 전파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현재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해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메르스 대처는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다.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현재 확진 환자가 너무 많다”며 “지자체와의 공조, 병원 공개 등의 대응책을 발표했을 때에는 이미 한발 늦었다”고 전했다.

설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를 하루빨리 진압하려면 현재 알려진 슈퍼 전파자들과 앞으로 생겨날 슈퍼 전파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협조가 향후 메르스 확산을 막는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는 전문가도 있다.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초기에 정부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도 부족하고 신중이 보나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메르스 확산을 막으려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이 적극적으로 이동 경로를 밝히고 적극 협조한다면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미 기자 boom@

임신부도 확진...14명 늘어 122명

삼성서울병원서 8명 감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14명 늘어 전체 환자가 122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밝혔다. 확진자 14명 중 8명은 2차 유행지인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됐고 다른 1명은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병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A경사를 포함한 나머지 5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불명확해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 중에는 처음으로 임신부 환자(39)가 포함됐다. 이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지난달 27일 같

항목	현황	전일 대비
확진환자	122명	+14
사망자	9명	-
격리자	3439명	-
격리해제자	641명	-
감염의심자	2469명	-

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메르스 감염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확진자 중 추가로 숨진 사람은 없었다. 현재 사망자는 9명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

1차 양성 → 2차 음성 → 3차 양성 확진판정

임신부 상태 양호...대증요법 치료할 듯

항바이러스제 최악 경우 사용

39세 만삭 임신부가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다니다 만삭 임신부를 검사한 결과 메르스 최종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환자는 지난달 27일 어머니가 입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아 1시간 정도 머물다 14호 환자와 접촉했다. 이 환자는 메르스 감염 이후 경미한 근육통 증상을 보였지만 현재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검사에서 이 환자는 각각 다른 검사 결과를 받았다. 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한 자체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10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3차 검사를 진행해 확진판정을 받았다. 1차 검사에서는 바이러스 유전자의 한 부위만 확인하는 선별 검사인 반면, 2차 검사에서는 유전자의 두 지점을 검

사하는 확진 검사였기 때문에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부이기 때문에 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환자에게는 우선 적극적 대증요법 치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증치료는 질환에 적합한 치료제가 없어 몸에 나타나는 증세에 맞춰 치료하는 방식이다. 환자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도록 돕는 보조 치료법인 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인터페론이나 항바이러스제인 리바비린 등이 투여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는 임신부 취급 위험약물로 분류돼 있어 최악의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메르스는 인터페론이나 리바비린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임부에게 쓸 수 없는 약물이기 때문에 적극적 대증요법(증상 완화치료)으로 치료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에서 조기에 메르스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보조적 치료로 양호한 치료 결과를 보인 사례가 있어 이 임신부도 완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영 기자 sypark@

WHO “수업재개” 권고...시교육청은 휴업연장

“과학적 근거 무시하고 학부모 근거없는 걱정엔 편승” 비판

서울시교육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휴업 자체 권고를 무시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를 이유로 휴교령을 연장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WHO 조사단은 지난 10일 오후 보건당국에 메르스 확산과 학교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휴업하는 학교들에 수업 재개를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 보건당국도 학교 휴업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휴업 자체를 교육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 유치원 등이 휴업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온 뒤 일선 학교의 휴업 조치가 의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

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 9일부터 서울 강남·서초구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휴업령을 시행 중이다. 특히 WHO 조사단의 휴업 자체 권고가 나온 이날 휴업령을 12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와 보건당국의 전문적 의견을 무시하고 학부모들이 근거 없는 걱정에만 편승해 휴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부미 기자 boom@

내일 설립 65주년 맞는 한국은행 美 금리인상 파고 어떻게 넘을까

미국 정책금리 정상화 코앞

글로벌 ‘환율전쟁’ 분위기 고조

금융위원회 4명 내년 임기만료

위원 역량 취약 우려감도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이 오는 12일로 65주년을 맞는다. 동시에 한은은 환상의 키를 맡지 않은 시점에 인하여서 인상 방향으로 돌릴 시기도 함께 맞닥뜨리게 됐다. 바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정책금리 정상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한은은 2012년 7월(연 3.0%)부터 기준금리를 3년 가까이 줄여 조정해 현 6월에는 1.50%까지 떨어뜨렸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2012년 2.3%, 2013년 3.0%, 2014년 3.3%를 기록, 2-3%대에 머무른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과거 가파른 고성장을 경험한 한국으로서 신봉하지 않다고 판단.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려 온 것이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양적완화를 펼치고, 글로벌 ‘환율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제11차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달 연내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자국과의 금리차가 좁혀지면서 외국계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한국은 시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65살이 된 한은은 그들이 걸어온 길만큼 금리 인상 과정이 얼마나 고된지 뼈저리게 알고 있다. 한 한은 통화정책국 사람은 “금리 인상을 반기는 경제주체는 아무도 없어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오롯이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며 “과거를 돌이켜보면 ‘육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야 하는 시점에 기준금리 결정의 합의체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이 취약해지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 7명 중 하성근·정해방·정승원·문우식 위원 임기가 2016년 4월 동시에 끝난다. 통상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적응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신참’ 금융위원들이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앤드류 레빈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위원 겸 닥터머스대 교수는 “통화정책 결정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적어도 5~7년의 중립적인 기간으로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이 급격히 바뀌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까지 15~30% 줄인다

CO₂ 8억5060만톤 배출 전망

정부, 4가지 시나리오 제시

이달말까지 유엔에 제출

정부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인 ‘포스트(Post)2020’에 대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약 15~30%를 줄이는 4가지의 목표 시나리오를 내놨다. 2030년 BAU는 8억5060만톤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공회회 등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감축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기여 공약(INDC)’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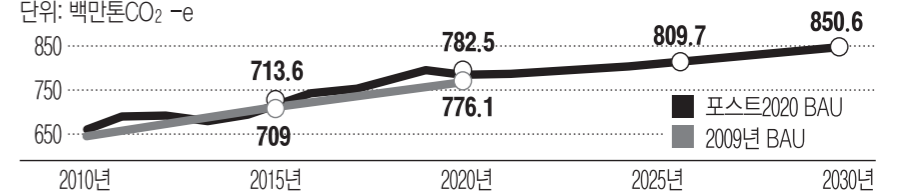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11일 감축여력과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30년 BAU를 기준으로 각각 14.7%(1인) 19.2%(2인) 25.7%(3인) 31.3%(4인)를 감축하는 4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고려해 BAU를 산정한 결과, 2030년 8억5060만톤의 이산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2030년 감축목표(안)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감축후 배출량(백만톤)	726	688	632	585
감축률	BAU 대비 -14.7%	BAU 대비 -19.2%	BAU 대비 -25.7%	BAU 대비 -31.3%
원단위 개선율	GDP(2012년 : 0.513 톤/백만원) -37.8%	GDP(2012년 : 0.513 톤/백만원) -40.7%	GDP(2012년 : 0.513 톤/백만원) -44.9%	GDP(2012년 : 0.513 톤/백만원) -48.3%
GDP 감소(2030년 기준)	0.90%	-4.4%	-12.3%	-18.8%
GDP 감소(2030년 기준)	-0.22%	-0.33%	-0.54%	-0.78%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BAU) 작업결과와 비교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에너지 부문이 86.9%, 산업공정·폐기물·농축산 등 비에너지 부문이 1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배출전망치는 7억8250만톤으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전망한 7억7610만 톤보다 0.8% 소폭 상승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1안은 감축은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해 BAU 대비 14.7% 감축하는 내용이다. BAU 대비 19.2%를 감축하는 2안은 1인의 감축수준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의

감축수단이 추가됐다. 3안은 여기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을 통해 BAU 대비 25.7% 감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BAU 대비 31.3% 감축목표를 세운 4안은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 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액화천연가스)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이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12일 공회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INDC안을 마련해 ‘디파 기후행동’ 합의에 따른 제출시한인 9월 말에서 석 달 앞당겨 상반기 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민정 기자 puri21@

가뭄에 타들어 가는 배추밭



10일 극심한 가뭄으로 배추 모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거리 국내 최고 높이(해발 1200m)의 고랭지 배추 산지인 안반대기에서 농민이 육군 제36보병사단 장병들의 도움을 받아 배추 모종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3

“보험금 나눌 ‘나이롱 환자’ 모십니다”

금감원, ‘사무장병원’ 105곳 적발

#A씨는 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의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가짜(나이롱)환자 입원과 의무기록 조작 등으로 민영보험금 29억9000만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19억2000원을 챙겼다. A씨는 물론이고 358일간 허위 입원하고 가짜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은 B씨도 지난해 경찰에 탐미를 잡혀 구속됐다. 금감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가 빈발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10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동일 주소지(건물) 등에 사무장병원을 2개 이상 불법 개설하거나 떠돌이·고령의사 명의를 이용하는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이 31곳,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개·폐원을 반복한 사례가 35곳, 고령의사 등의 명의대여가 28건, 요양병원 운영 형태를 악용한 사례가 21곳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

를 유치하는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57곳을 대상으로 먼저 기획조사를 벌이고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사무장) C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 같은 주소지 건물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열고 환자를 유치했다. 그러고선 의원에 입원 중이거나 허위 입원인 가짜환자인데도 서류상 퇴원시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몄다. 경미한 질병으로 한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의심을 받기 쉽다는 점 때문에 가짜 환자를 2개 병원에 돌려 입원시킨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같은 장소의 의료기관인데 개설의사 명의를 자주 바꾼다는 것도 사무장 병원의 특징으로 꼽혔다. D씨는 법인이사장 E씨와 짜고 법인명의로 의원을 연 뒤 5명의 의사를 고용, 4차례 개·폐원하면서 가짜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의료선행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조합과 부속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가짜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현 기자 nts0118@

하도급 계약 일방해지... CJ대한통운 ‘갑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멋대로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두 달 뒤 돌연 취소했다. 이 하청업체는 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CJ대한통운 측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계약된 선박 배치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발주자와의 계약이 틀어지자 하청업체와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렸다. 박상영 기자 sympark@

아울러 CJ대한통운은 2013년 10월 하청업체에 해상운송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한 하청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CJ대한통운으로부터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영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앞으로도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 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mpark@

구직자 심증팔구 “취업 사춘기 경험”

구직자 10명 중 9명은 취업난 속 앞날에 대한 걱정, 심리적 불안 상태에 빠지는 이른바 ‘취업 사춘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인 구직자 720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춘기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87.5%가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 절반 이상(57.5%)은 현재까지도 취업 사춘기 상태라고 밝혔다. 취업 사춘기를 겪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직기간이 장기화돼서’(23.3%)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취업에 계속 실패해서’(22.4%),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18.4%), ‘꿈과 현실이 달라서’(15.1%), ‘자신감이 부족해서’(7.9%) 등의 답변이 있었다. 취업 사춘기는 구직활동을 시작한 지 평균 4개월 후부터 겪기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상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진다’(67.8%,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장래에 대한 고민이 늘어난다’(64.9%),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60.2%), ‘자존감이 낮아진다’(59%), ‘자꾸 우울해진다’(56%), ‘구직 의욕이 사라진다’(52.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윤희은 기자 euna@



능력 없는 곳에 하청 주고→ 중개수수료 받고→ 연구개발 면책 약속→ 부실장비 장착

‘이규태 째짜미’에 1100억 날린 공군

이면계약으로 납품대금 부풀린 SK C&C 前전무 기소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대금을 부풀려 방위사업청을 속인 SK C&C 전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윤모(57) 전 SK C&C EWTS 사업담당 전무를 10일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윤 전 전무는 2009년 이규태(65·구속) 일광공영 회장이 주도한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납품대금을 허위 계산해

방사청으로부터 1100억여원의 사업비를 받아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K C&C는 2007년 12월 이 회장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SK C&C를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면 하청대금의 32%를 일광공영이 지칭하는 업체에 재하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특히 일광공영과 국내의 참여업체가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하청대금 돌려주기와 중개수수료 대납, 연구개발 면책 등의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K C&C는 EWTS 사업의 국내 유일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C2(주전산장비)·SAS(신호분석장비)·TOSS(제정장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맡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면계약 때문에 사업 상당 부분이 솔브레인 등이 회장의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이 회장은 SK C&C와 이면계약 이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청대금 529억원의 32%인 170억원을 TOSS 연구·개발 재하청 대금으로 요구했다. 여기에 C2 연구·개발과 SI(시스템통합) 작업을 84억원에 일괄 재하청해 달라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C2 연구개발비 60억원은 원래

하벨산이 이 회장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였다. SK C&C는 이런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는 대신 하벨산으로부터 C2 연구개발에 대한 면책을 약속받았다. 당초 주 회사가 맺은 하청계약에는 “SK C&C가 재하청을 주더라도 모든 작업에 대한 책임은 SK C&C가 진다”고 돼 있었다. 재하청을 받은 일광공영 계열사 솔브레인은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C2는 국내 연구개발 없이 하벨산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비 그대로 장착됐다. 부실 장비에 대한 책임이 공중에 떠버린 셈이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영종하늘도시, 분양금 5% 돌려줘야”

대법 “과장광고로 피해”... 입주계약금 반환소송 일부 승소 판결

허위 분양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적으로 ‘영종 하늘도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이 분양사가 5%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분양을 받은 김모씨 등 712명이 (주)한국자산신탁과 (주)한양, (주)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기개발을 상대로 낸 5건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영종힐스테이트 분양계약자 605명이 건설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소송 상고심과 영종신명스카이뷰주얼리 분양계약자 348명이 건설사인 신명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라고 봐야 하지만, 다소 과장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볼 때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속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양광고에서 입지조건으로 소개된 제3연륙교, 제2공항공로 설치사업 등은 실제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었고 분양광고 무렵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는 했지만 사업이 무산되거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늘도시’로 불리는 인천 영종지구 아파트 시공자들은 2009년 10월부터 분양공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회사들은 전단지, 책자,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3연륙교와 각종 개발사업, 제2공항공로, 학교신설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고, 김씨 등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까지 잔금을 치렀지만 광고에 나왔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분양회사들이 허위 광고로 사기계약을 했으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제3연륙교에 대한 과장광고만 인정하면서 손해율 5%로 제한했다. 좌영길 기자 jy97@

통영함 납품로비 前장교 2심서 징역 1년6월 선고

통영함 건조사업 납품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장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소령 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는 선박장비 제조업체 A사가 예인가·양모기계선기 등을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위사업청 합정사업부 상무함사 업무에 근무하던 최모 전 소령은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정씨의 부탁을 받고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에 A사 제품을 추천해줬으며 결국 A사의 장비 19억6000만원 어치가 납품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최 전 소령이 먼저 A사에 정세를 소개해준 점, 정씨가 금전적 이익보다 A사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쌓으려는 의도가 컸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소령은 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에서 뇌물 6억여원을 받고 서류를 변조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좌영길 기자 jy97@

메르스 격리병실 언론 공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공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10일 오후 메르스 노출자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음압 격리병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뉴스3

홍원식 회장 항소심 재판 “탈세 고의 없었다” 증언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남양유업 재무팀 직원이 출석해 홍 회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회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남양유업 재무팀 직원 김모씨는 “(고)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차명 보유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로 총 223억여원의 세금을 부담했다”며 “본인이 취득한 차명 주식이라고 했으면 금액을 이보다 더 낮출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이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을 미룬 데 대해 김씨는 “홍두영 전 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사망 당시에는 혼란을 우려해 실명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홍두영 전 회장의 유언집행자였던 연세대 로스쿨 남모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두영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한인 천재소녀’ 알고보니 자작극?

하버드·스탠퍼드 동시합격 화제... 통지서 위조로 드러나

미국의 명문대학교 하버드와 스탠퍼드를 동시에 합격한 것으로 국내 언론에 소개된 김정윤(18)양의 합격 소식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버드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 측은 9일 (현지시간) 김양의 합격통지서가 위조된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하버드 대학본부의 공보담당자는 이날 김양의 합격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김양 가족이 제시한 합격통지서가 위조(forgery)된 것”이라고 답변, 합격 사실을 공식으로 부인했다. 예나 코엔호버 하버드대 공보담당장은 “스

탠퍼드대에 일정 기간 수학한 뒤 나머지를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고 어느 한쪽으로 졸업장을 받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 대학측도 김양의 합격 여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스탠퍼드 대학의 리사 라빈 공보담당도 “현재 김정윤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스탠퍼드 대학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양 가족이 대학 측에서 받았던 통지서 언론에 보여준 합격통지서에 대해서는 “대학의 공식 담당자가 그런 문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윤희은 기자 euna@

앞서 버지니아주 토머스제퍼슨 과학고 3학년이 재학 중인 김양과 그 가족은 김양이 작년 말 하버드대에 조기 합격한 데 이어 올해 초 스탠퍼드대에 코넬대, 매사추세츠대 공과대학(MIT) 등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혀 세간의 화제가 됐다. 특히 김양 가족은 스탠퍼드대가 김양을 영입하고자 처음 1~2년을 스탠퍼드대에 배우고 다음 2~3년을 하버드대에 다닌 뒤 최종 졸업학교를 김양이 선택하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김양의 소문을 듣고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났다는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양의 부친인 김정욱(46)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은 기자 euna@

신한은행 '실버뱅킹' 하반기 출시

최근 부가세 10% 적용 판결... 세율 인하 가능성 높아져
금가격 60분의1로 소액투자 가능... 변동성 커 수익 기대

신한은행이 올해 하반기 중 실버뱅킹을 도입할 예정이다. 실버뱅킹은 고객이 은행계좌에 돈을 넣어 은 시세와 환율 등을 고려해 은을 통장에 적립해 놓는 투자방식이다. 나중에 고객이 현금화를 원할 때 은값이 오르면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

특히 은(銀)은 가격이 금 대비 60분의 1가량 저렴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파생결합증권(은적립계좌) 발행 관련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버뱅킹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라며 "실버뱅킹은 기초 자산이 원자재 이다 보니, 상품 내용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은행들은 실버뱅킹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실버뱅킹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법원과 과세당국이 골드뱅킹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적용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중은행은 실버뱅킹의 도입을 주저해 왔다.

과세당국과 신한·국민은행 등은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를 실물을 사고파는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해야 하는지 배당소득세율(15.4%)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10% 세율만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지만, 금융권은 과세당국이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 판결에서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로 보지 않고 실물거래로 봐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할 경우 투자자들과 판매 은행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경우 실버뱅킹이 활발해 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판단이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현재 은 3.75g(1돈)의 시세는 2400원으로 지난 4월 27일 2250원 대비 소폭 상승세다. 하지만 은 3.75g(1돈)의 시세가 연중 최고치였던 지난 1월 23일 2650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실버뱅킹이 본격화 되면 유동성 자금이 유입 될 수 있어 은의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구리 기자 kkk@

중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 지분 63% '최대주주'

중자본 국내 금융업계 첫 진출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했다. 중국 금융사가 국내 금융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안방인수보험고빈유한공사가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0%)를 취득해 동양생명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의 지분 63%를 보유해 1대 주주가 됐다. 매각 가격은 주당 1만6700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1조1319억원이다.

안방보험은 지난 3월 25일 금융위원회에 동양생명 경영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중국 금융당국에게 안방보험에 대한 제재 전력과 자본 건전성 등에 관한 서류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안방보험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안방보험이 최근 3년간 제재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 금융위가 인수 승인을 결정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모바일 카드 안 만든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실제 수요보다 시류에 치우친 느낌
가맹점 인프라 못 갖춰 사용처 제한
실물기반 애플카드만으로도 혜택충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또 한번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철학을 나타냈다.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신한카드, BC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등이 실패한 모바일 카드를 출시했고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도 경쟁에 가세할 계획이지만 모바일카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타사들은 다들 모바일 전용카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이지만, 현대카드는 출시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카드 출시 불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독자노선을 택한 것이다.

정 부회장은 모바일카드 시장 진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부 특화된 혜택이 있지만 용도 폭이 너무 적고 실제 수요보다는 시류에 치우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즉 카드업계의 유행을 따라가기 보단 현대카

드만의 색깔로 실익을 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이 출시한 모바일카드는 자신이 직접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각 카드사들의 출시한 모바일카드는 기존 카드와 기능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사용처는 제한돼 있다. 모바일 전용카드의 경우 가맹점의 인프라가 설치돼 있지 않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즉 정태영 부회장은 대세에 치우친 모바일카드 시장에 무작정 진출하기 보단 실물카드 기반 애플카드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정태영 부회장은 카드사들의 빅데이터 전략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다른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미래 핵심사업으로 보고 전력 투구하는 상황에 대해 "이미 카드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고객관계관리 기법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대카드는 최근 서울 이태원에 다양한 음악과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오픈한데 이어 다음달에는 플레이드 카드의 제작과정을 일반에게 공개 시연하는 카드 팩토리를 오픈하는 등 충성고객 확보를 위한 문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부산은행, 경기 1호점 '시화공단지점' 오픈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10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경기지역 첫 점포인 시화공단지점을 개점했다. 부산은행은 시화공단지점에 기업금융 전문 지점장과 직원을 우선 배치해 공단 내 기업고객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박재경(왼쪽 가운데)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은 "시화공단지점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연고기업과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해 점차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BNK금융그룹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15-01023호(2015.2.23~2016.2.22)

올은 길로만! 正道 SK증권

2014 컴플라이언스 대상 수상!

SK증권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통한 투자자 보호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준법경영을 선도한 우수한 증권회사임을 인정받아 2015년 1월 27일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는 건강한 금융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고객센터 1599-8245 행복파트너 SK 증권

뚝 끊긴 '통일금융'...정책기관만 명맥 유지

시중은행 최근 6개월내 신상품 없어
캠코·산은·수은은 포럼·토론회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함께 지난해 금융권 사이에서 불었던 '통일금융'이 주춤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정책금융기관만이 각종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활동을 진행하며 정부의 통일금융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근근이 애쓰는 모습이다.

11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시중은행이 내놓은 통일금융 관련 신상품은 단 한 건도 없다. 은행들이 설립한 통일금융 연구소의 연구 실적도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이 통일 예·적금 상품과 통장 및 카드 등 총 8개 상품을 출시하고, 기업,신한은행이 각각 IBK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금융연구회를 발족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정책금융기관들은 기관 특성에 맞춰 통일금융

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캠코의 통일국가자선연구포럼은 10일 통일미래포럼과 공동으로 '북한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경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이섭 캠코 책임연구원은 '통일대비 북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 캠코가 통일을 대비해 북한 기업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했다.

KDB산업은행도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 아래 팀 개념으로 한정된 북한경제팀을 미래통일사업 본부의 통일사업부로 승격, 인력을 충원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북한개발연구센터를 개소한 수출입은행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연구, 기간마다 수은북한경제와 통일 연구 자료를 펴내는 등 북한 개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금융당국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금융정책 기조가 기술금융으로 쏠리면서 금융당국도 통일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성별 기자 byul0104@

서민금융 대안 'P2P대출'이 대부업?

사업자 대부업증 등록 심리적 위축
"규제 과도... 새로운 업종 분류해야"

P2P대출 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정부가 핀테크 육성에 열을 올린다는 소식을 들어도 반갑지가 않다. P2P대출은 해외에서는 엄연히 핀테크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모든 투자자에게 대부업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P2P대출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빌려주고자 하는 공급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하는 대출 중개업이다. 선진국에서는 상호금융이나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해 서민금융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금리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환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2P대출 사업자 대부업체 등록을 하는 것은 물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P2P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P2P대출의 특성상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많고 여러 사람에게 자주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볼때 업종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P2P대출을 새로운 업종으로 분류해 신종사업 형태와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보호 측면이라는 위험요소는 당국과 업계가 같이 관리해 나갈 부분인데, 금융당국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부업자 등록 의무의 요건도 명확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과도한 규제"라며 "채권자들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잘 내게 하는 게 우선적인 부분인데 당국이 이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림 기자 hura@



존재감은 한면으로 충분하다



한 눈에 보이는 카드 혁신 신한카드 B.BIG[빅]

한 눈에 빅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결제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한 눈에.

한 장으로 빅

버스/지하철은 기본, 택시/KTX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한 장으로.



VISA 퀵리드[QUICKREAD] 시스템 온라인 쇼핑에서의 결제 과정을 배려해 세계최초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결제 정보를 카드 앞면에 일괄 배열

신한카드 **Code9** 시리즈 #5
[신한카드 B.Big]

Mr. Routine + Prima Donna
3040 직장인을 위한 카드

대중교통 할인
- 버스/지하철 하루 최대 600원 할인
- 택시/KTX 10% 할인

영화예매 할인
- 인터파크/예스24 온라인 예매 할인
- CGV 예매 할인

통합할인 서비스
- 쇼핑/편의점/커피/통신비 5~10% 할인

연회비 S& 1만원, Visa 1만3천원, 연체시 연체이율 연 23.0~29.5% 신청 전 상품설명 및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1544-700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150508-1133-001[2015.5.19 현재 유효]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

BIG to GREAT 신한카드

삼성·LG, 글로벌 콘텐츠 기업 '협업' 가속

삼성 마블과 '갤S6 엣지 아이언맨' 협력...유니버설 '쥬라기월드' 맞손
LG日 '디즈니 모바일' 출시...IT+문화 결합 멀티마케팅 효과 노려

전자업계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소규모 간접(PPL) 광고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기술(IT) 기기와 문화를 결합시켜 멀티 마케팅 효과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는 최근 문화·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전작 스마트폰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를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마블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았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마케팅에 그치지 않고 상품 기획, 디자인, 마케팅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갤럭시S6-엣지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이영희 무선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갤럭시S6 엣지' 출시 행사에서 "마블과의 협업은 마케팅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마블과 협력해 국내에 한정

판매한 '갤럭시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은 높은 인기에 온라인 서버가 마비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의 흥행에 성공하자 중국 등 전 세계 10여개국에 확대 출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유니버설 픽처스와도 협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12일 개봉(미국 기준)하는 울버린 대작 '쥬라기 월드'를 활용한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특히 영화 속 테마파크 중심에 있는 방문객 센터는 '삼성 이노베이션 센터' 브랜드가 직접 노출되며, 첨단 기술로 관람객들이 공룡들을 증강 현실로 체험하거나 공룡 연구가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묘사된다. 영화 속 인물들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고, 영화 곳곳에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가 등장한다.

LG전자는 일본 시장에 울트라디즈니 인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쥬라기 월드' 시사회장에 설치된 55인치 SUHD TV 6대로 만든 대형 디스플레이 앞에서 배우 빈센트 도노프리오,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감독 콜린 트레보로우(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기 캐릭터 형상을 담은 스마트폰(디즈니 모바일 온 도코모 DM-1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신데렐라', '미키마우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겨울왕국', '인어공주' 등 5개 디즈니 작품 세계를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사용자경험(UX)에 고스란히 담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콘텐츠는 성격이 다른 산업 대부분을 포용할 수 있는 만

능 IT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애플, MS,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러 "단순 협찬이나 광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콘텐츠와 결합한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한 이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호진 기자 js62@

삼성전자 25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

'실적 끌어올리기' 머리 맞댄다

연초 수립한 경영계획 점검
스마트폰 중저가 전략 마련
TV사업은 환율 대비 모색

삼성전자가 실적 고공행진을 위한 글로벌 전략회의를 이달 25일부터 개최한다. 경기 수완과 기흥사업장에서 열린 전략회의는 연초 설정한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해마다 6월25일 전후로 3일 간 개최돼왔다.

전략회의에는 권오현 DS(부품)부문 대표이사 부회장과 윤부근 소비자사업(CE) 부문 사장, 신종균 IM(IT-모바일)부문 사장 등 각 사업부문 대표와 사업부 주요 임원, 해외법인장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달리 사업부문별 다음 해 경영전략 및 사업목표를 수립한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올해 1분기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전략 수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스마트폰과 TV 등 주력 제품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 업체의 거센 추격과 업황 부진 등으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

인 만큼, 하반기 판매 확대 및 수익성 제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사업은 중저가와 프리미엄 두 트랙 전략을 통해 예전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 올 4월 내놓은 '갤럭시S6-엣지' 덕분에 지난해 4분기 애플과 공동 1위를 기록한지 1분기 만에 세계 단독 1위 타이틀을 되찾았다.

그러나 중국 현지 업체의 성장 및 하반기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시장 선두 자리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S6 엣지 파생모델과 '갤럭시노트5', 중저가 라인업 전략을 수립, 스마트폰 경쟁력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TV 사업은 환율 약제를 타개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TV 사업을 총괄하는 VD(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는 올 1분기 유로화와 이머징 국가 통화 약제 환율 여파로 적자를 기록했다. 환 리스크로 삼성전자는 전사적으로 약 8000억원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입었다. 환율 약제가 올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환 영향을 최소화할 판매 전략을 수립할 전망이다. 우선 순항하고 있는 'SUHD TV' 등 프리미엄 TV 판매 확대와 함께 수익성 제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영 기자 gujy@

SK이노, 루브리컨츠 매각 검토... 사업 개편 승부수

IPO로 자금 확보 계획했으나
MBK파트너스서 인수 제안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 SK루브리컨츠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SK루브리컨츠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최근 내부 논의 결과 매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게 보유 중인 SK루브리컨츠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각 대금은 2조5000억~3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안에 SK루브리컨츠를 상장하기로 결정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 측이 SK이노베이션 측에 접촉해 IPO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SK루

브리컨츠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MBK의 제안을 받은 후 내부적으로는 의한 결과 사업 구조조정과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매각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2009년 옛 SK에너지에서 유틸리티 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SK루브리컨츠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매출 3조5292억원, 영업이익 2954억원을 기록했다. MBK는 SK루브리컨츠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점을 높이 사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SK루브리컨츠의 유틸리티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 확실한 안착한 상태고, 수익도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삼성 사장단 "엘리엇 대응 아이디어 모으는 중"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삼성계열사 사장들이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봉영 제일모직 리포트-건설부문 사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에서 열린 수요자시장단회의에 참석한 후 엘리엇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잘 대응해야 한다"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주주 가치 제고라고는 하지만 목표가 다른 것 같다"며 "장기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느 게 진정한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최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비율이 1:0.35로 결정된 것에 대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며 합병반대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합병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들에 대해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7월 17일 엘리엇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확정은 11일 확정된다. 9일까지 주주명부에서 주식을 매입해야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현대차 미국에 '한국연구센터' 설립



현대자동차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인 워싱턴 소재 우드로 윌슨 센터에 '현대차-국제교류재단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우드로 윌슨 센터와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제인 하먼 우드로 윌슨 센터 소장이 협약 체결식 행사에서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이광국 현대차 워싱턴사무소장, 유현석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뒷줄 왼쪽부터)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와이디온라인 20억 유치
YG엔터·위메이드에 CB 발행

와이디온라인이 YG엔터테인먼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로부터 총 20억원의 자금을 수혈받았다. 와이디온라인은 이번 투자유치로 운영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와이디온라인을 둘러싼 매각설도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은 YG엔터테인먼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와이디온라인은 이번 CB발행을 통해 YG엔터 15억원, 위메이드 5억원 등 총 2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와이디온라인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통해 CB발행을 결정하는데 이어 이달 초 YG엔터와 위메이드에서 모두 2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와이디온라인은 당장 20억원의 현금 확보하면서 유동성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와이디온라인의 현금보유액은 3억원 수준이었다.

당초 업계와 시장에서는 와이디온라인의 매각설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와이디온라인은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과 관련한 조희공시 답변에서 "최대주주인 시니안유한회사에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에 대해 검토 중인 사실은 맞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시니안유한회사의 매각계획이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와이디온라인이 적극적으로 자금유치에 나선 것 자체가 매각 보다는 회사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묻어나기 때문이다. 와이디온라인이 위메이드로부터 온라인 사업권을 넘겨 받은 것도 게임사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

코오롱 'PET 에어백 쿠션' 美 포드車에 탑재

오토리브와 3800만달러 계약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어백 쿠션이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포드의 4개 차종에 신규로 장착되면서 듀폰 소재 종료로 미국 시장 등 해외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부품업체 오토리브와 3년간 총 3800만달러(한화 약 423억원) 규모의 에어백 쿠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대한 대규모 납품은 이

번이 두 번째로 2013년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닷지 차량에도 적용된 바 있다.

계약 품목은 OPW(One Piece Woven) 타입의 사이드커튼 에어백 쿠션이며 미국 포드자동차의 인기 모델 몬데오, 링컨, 퓨전, 엣지 차종에 장착된다. 오토리브는 에어백 모듈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세계 1위의 자동차 안전부품업체이며,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에어백 쿠션을 에어백 모듈로 조립해 포드자동차에 납품하게 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성과를 폴리

에스터(PET)로 자체개발한 에어백 쿠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기존 에어백 쿠션의 주요 소재였던 나일론 원사 대신 PET를 적용한 에어백 쿠션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2013년 양산에 성공했다. 에어백용 PET는 강도 및 내구성 면에선 나일론과 흡사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PET 에어백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고전압 하네스·해저 전력 케이블·초전도... LS전선, 고부가 제품 마케팅 강화

중 동평차 하네스 공급 계약

LS전선이 'LS전선 Way' 선언 이후 고전압 하네스, 해저 전력 케이블, 초전도 등 고부가가치 제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올해 1월 글로벌 케이블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LS전선 Way를 선포한 이후 '선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사업 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임직원의 역량을 한데 모아 고부가가치 제품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LS전선은 이에 힘입어 최근 중국 2위 자동차회사인 동평차의 친환경차용 고전압 하네스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하네스는 전자제어장치와 통신 모듈을 연결, 전원을 공급하고 각종 센서를 작동·제어하는 케이블로 전기자동차용 일반 자동차의 12V급보다 높은 600V급이 주로 사용된다.

윤재인 LS전선 사업총괄 대표는 "동평차와 차량 개발 로드맵의 공유 등으로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자동차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LS전선은 물과 상극인 전선을 해저를 통해 있는 해저 전력 케이블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초에는 카타르 석유공사로부터 4억3500만 달러 규모의 해



지난해 9월 LS전선 강원도 동해 공장에서 카타르 석유공사로부터 수주한 해저 케이블(카타르 프로젝트)을 출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LS전선

저 케이블 2차분을 출하했다. 이 해저 케이블의 규모는 100km, 6600톤에 달한다.

LS전선은 지난 2009년 강원도 동해시에 국내 유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준공하며 해저 케이블 시장에 뛰어들었다. 기존 유럽 업체들의 견제 속에서 LS전선이 국내는 물론 중동과 유럽, 남미 등에서 연달아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해저 케이블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미래 기술인 초전도 분야에서도 약진이 두드러진다. LS전선은 지난 1월, 제주 초전도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직류 80kV급 초전도 케이블의 실제 테스트를 성공리에 완료하며 상용화에서도 한발 앞서가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K뷰티 타고 '화장품 2인자' 설움 벗은 차석용 한방생활·유아용품으로 전선 넓힌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생활용품·유아용품 등을 앞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에 이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국내 면세점에서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후'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설화수'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면서 차 부회장은 '화장품 2인자'의 설움에서 벗어났다. '후'가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의 사랑을 독차지한 덕분이다. 화장품 명가의 자존심을 회복한 차 부회장은 '제2의 후'를 만들기 위해 최근에 한방화장품을 론칭한 데 이어 한방생활용품 및 유아용품 브랜드 중국 진출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미 한방생활용품 브랜드 리엔, 귀애랑과 유아용품 브랜드 베비언스 등의 중국 오프라인 진출을 위한 위생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내 현지 판매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후'의 높은 인기가 차 부회장의 중국 시장 공략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후'는 지난해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방한한 평리위안 여사가 즐겨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가 치솟았다. 설화수를 제치고 주요 국내 면세점에서 1위 브랜드로 등극, 연 4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중국인 사이에서 LG생활건강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제품들의 인기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차 부회장은 중화권 시장 육성을 위해 중점 사업으

로 LG생진 '후' 국내 면세점 1위 브랜드로

중국·대만·홍콩 등 중화권 사랑 독차지

'더 사가 오브 수' 론칭·'베비언스' 강화

로 내건 바 있다. 그는 올 초 임직원에게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해야 한다"며 "중국 및 중화권 국가를 최우선 목표로 시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한방 성분을 활용한 프리미엄 생활용품이 많지 않다는 점이 그에게는 큰 기회다. 특히 중국 유아용품 시장은 매년 약 20%씩 성장해 오는 2018년 100조원 규모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신중부자 사이에 간간한 한국 열풍을 따라하는 '한류 육아 열풍'이 불고 있어 차 부회장의 중국 공략에 더 힘을 받을 것이라 전망한다.

차 부회장은 한방생활용품의 본격적인 진출에 앞서 최근 중화권 공략 타깃용 새로운 한방화장품 브랜드 '더 사가 오브 수'를 선보였다. 브랜드명은 아름다운 미인을 뜻하는 '수(秀)'와 전설을 뜻하는 '사가(saga)'를 합쳐 만들어졌으며,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보습과 안티에이징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유아용품의 경우 종합 브랜드로 진출하기 위한 작

업에 돌입했다. 차 부회장은 2012년 론칭한 분유 브랜드 '베비언스'를 최근 별도의 브랜드로 독립시키고, 화장품 가제 수건 물티슈 등으로 품목을 확장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한방생활용품 브랜드 일부는 이미 중국에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활성화시킬 방침"이라며 "유아용품 베비언스 역시 중장기적으로 중화권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지만, 연내 진출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지에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면세점과 할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 브랜드 인기가 매우 높고, 티몰글로벌 등 중국 B2C 직영몰에서도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며 "연내 판매가 시작되면서 LG생활건강의 중국 현지법인 성장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털 무선청소기에 전용 급식기까지

'펫팸 가전'이 뜨고 있다

펫케어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 출시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펫팸(Pet Family·펫 패밀리) 가전'이 뜨고 있다. 반려동물 털 청소용 무선청소기, 전용 급식기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나오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11일 미국 진공청소기업체 후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내 시장 론칭 2년차를 맞아 '에어코드리스 투인원(Air Cordless 2in1)'·'사진'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최근 펫팸 가정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무선청소기 가운데 유일하게 터보 헤드를 추가해 머리카락이나 반려동물의 털을 완벽히 청소할 수 있다는 점이 한몫했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반려동물 털 청소 기능을 갖춘 간단한 놀이기구도 등장했다. '모리타 로보청소기(MK-560)'는 반려동물이 갖고 놀 수도 있고 털 먼지를 제거해 일석이조인 간편한 애견용 털 청소 놀이기구다. 버튼만 눌러주면 굴러다니며 반려동물 털 먼지를 제거하고, 15분 뒤 스스로 정지한다.

이주코리아가 브랜드 '붐(VUUM)'을 통해 선보인 반려동

물 전문가전 '펫케어시스템'도 최근 인기다. 이 제품은 음이온 샤워, 산소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에어샤워, 음이온 드라이 등 펫 샴푸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고급 케어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반려동물 원격 급식기나 애견 전용 드라이어 역시 최근 빠르게 저변을 넓혀 가고 있다. 블루투스 전문기업 오픈브레인테크는 스마트 펫케어시스템 '펫스테이션(petSTATION)'을 선보였다. 200만 화소급 HD 카메라가 장착된 반려동물 원격 급식기로, 스마트폰 앱 '스카이프(skype)'를 이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집 안 반려동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다.

세계 최초 애견 전용 드라이어인 '에따라'도 최근 국내 시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70dB 이하의 낮은 동작음으로 소음 스트레스를 최소화했으며 40~45°C의 쾌적한 미온의 바람으로 애견의 모발과 피부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접어들면서 관련 시장도 점차 커져 가고 있다"면서 "청소기에서부터 최근엔 스마트 폰과 연계된 목걸이, 전용 음악·TV채널도 등장하는 등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왼쪽부터 마렐, 노스페이스, 밀레 아쿠아슈즈.

안전하게 가볍게 예쁘게...아쿠아슈즈의 진화

아웃도어 업계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쿠아슈즈 시장을 잡기 위해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한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렐은 안정성을 강화한 '울아웃 블레이즈 에어로'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제품은 바닥에 일반 고무의 6배 강도인 폴리우레탄(TPU) 소재를 사용해 일반 산악 지형은 물론, 자갈 및 바위가 많은 계곡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다. 또 이중 충격 흡수 시스템인 유니플라이(UNIFLY) 기술을 적용한 미드솔을 통해 탁월한 충격 흡수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비탈길이나 내리막길 등에서 민첩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노스페이스는 경량성을 높인 '워터 2G'와 '워터 1G'를 선보이고 있다. 노스페이스 워터슈즈는 발 전체를 감싸주는 누폼(NU FOAM) 원단과 배수성·통기성이

뛰어난 메시 소재 걸감을 사용해 물놀이 시 한층 가볍고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발 등 부분의 조임끈과 베라 커버를 생략해 경량성을 높였다.

밀레는 슬리퍼와 샌들로 사용 가능한 아쿠아샌들 '토퍼야'를 내놨다. 이 제품은 발뒤꿈치를 감싸는 스트랩인 '힐 서포트'를 걷어 올리면 슬리퍼로 변신하는 하이브리드형 샌들이다. 수막현상을 방지해 미끄러운 지면에서 체중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켜 안정적인 보행을 돕는다. 특히 샌들로 활용 시에는 뒤축을 잡아줘 안정감을 제공한다.

K2는 모두 인솔(안창) 탈부착이 가능한 아쿠아슈즈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인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놀이 후 젖은 인솔을 갈아 끼우거나 분리 세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조승예 기자 sysy@

메르스 때문에...울고 웃는 제약사

보령 '폐가시스'·한화 '에키나포스' 등 판매 축 영업직원 병원 출입 차단에 매출 차질 우려도

국내에서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메르스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메르스 특수를 누리며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제약사는 영업직원의 병원 출입 자제령이 내려지면서 목표 매출 달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이 올해부터 영업을 시작한 '폐가시스(페그인터페론알파-2에이)'는 최근 메르스 여파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메르스 대응 요법으로 인터페론-리바비린·칼레트라 등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제약의 천연 감기치료제 '에키나포스'도 메르스 여파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인 에



한화제약의 천연 감기치료제 '에키나포스'. 사진제공 한화제약

키나포스는 면역력 증강 및 항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을 가진 감기치료제로 지난 2010년부터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반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 양상을 보이자 제약사 영업직원들에게 병원 출입 자제령이 내려지면서 제약사들의 영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공개된 이후에는 제약사 영업직원의 병원 출입이 거의 차단됐다"며 "게다가 병원 명단 공개 이후 환자들의 병원 발길도 줄어들면서 전문의약품의 소비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출 감소로 이어질까 걱정한 분위기"라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kangin@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로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대한민국 1등 비타민C 회사※

고려은단이 만든 프리미엄 비타민C

고려은단 프리미엄

비타민C 골드

비타민C
1,000mg

비타민D
5μg
(200IU)

비오틴
30μg

비타민C에 비오틴, 비타민D를 더한 프리미엄 비타민

고객센터 080-277-0006
www.koreaeundan.com

※ 조사대상 : 남녀 300명 조사기관 : (주)로이스컨설팅 조사기간 : 2015. 1. 9 ~ 2015. 1. 13

“똥똥한 지갑? 포인트 적립도 태블릿으로”

‘핑크퐁’ 스마트스터디 100억 규모 투자 유치

158개국 5000만 회원... 자산가치 인정

모바일 교육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는 IBK캐피탈·KDB캐피탈 등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스터디는 넥슨과 NHN 등 IT기업 출신 인력들이 모여 2010년 창업한 모바일 교육 기업이다. 모바일과 유아동 교육 콘텐츠가 결합된 유아교육용 ‘핑크퐁’을 론칭하며 모바일 교육 시장을 개척해왔다.

핑크퐁은 1-5세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동요, 동화, 파닉스, 수학 등 자체 개발한 1000여 편의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과 만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58개국 5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별 해외 매출 비중은 북미권 28%, 동남아시아권 33%, 중화권 21%에 달한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아마존 앱스토어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글로벌 전략과 중국 현지 모바일 앱마켓, IPTV 진출을 앞두고 있어 핑크퐁의 글로벌 성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투자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스무 아동 교육 브랜드로서 ‘핑크퐁’만의 높은 자산 가치 △글로벌 성과를 통해 입증된 독자적인 콘텐츠 기획력과 기술력 △모바일 플랫폼을 넘어선 유통 채널 다각화 △기존 모바일 회원을 기반으로 도서, 교구 등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한 O2O 교육 비즈니스 실현 등을 투자 배경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스마트스터디 대표는 “핑크퐁은 순수 국내 콘텐츠와 기술력이 만든 모바일 기반 글로벌 교육 브랜드”라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스마트스터디는 모바일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핑크퐁’만의 새로운 통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스타트업 손성훈 스포카 대표

‘도도포인트’ 데이터 수집·마케팅 연결 사용자 만족도 높아... 제휴업체 확대 지난해 日지사 설립 ‘앞선 기술력 자신’

계산대에 놓인 태블릿PC에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고객 데이터에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된다. 멤버십 카드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적립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낭비할 일도 없다. 점주 입장에서는 고객 정보 분석이 가능, 마케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 ‘스포카’ 덕분이다. 최재승 대표와 손성훈 대표가 공동으로 창업한 스포카는 매장 고객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며 스마트 오프라인을 추구한다.

“스탬프 카드를 대체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는 손 대표는 미국 맥킨지 컨퍼런스에서 3년간 근무하다 최 대표의 제안에 창업전선에 뛰어 들었다. 그는 “포인트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지갑이 두꺼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며 창업 이유를 밝혔다.

2011년 5월 설립된 스포카는 창업 초상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제공해 왔다. 지금까지 포인트 적립 시스템의 대부분은 종이에 도장을 찍거나 플라스틱 멤버십 카드, 적립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단골 고객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개인 매장에서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손 대표는 “도도 포인트는 데이터 수집이 쉽고 마케팅까지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카는 올해 4분기까지 ‘더 스마트하고 더 간편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카는 지난해 12월 일본에 지사를 설립, 해외에 첫발을 디뎠다. 일본 시장의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지만 소규모로 영업하고 있는 점주들은 아직 이렇다할 포인트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다.

그는 “국내 기술이 일본의 기술력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라며



손성훈 스포카 대표(가운데)와 직원들이 5일 서울 대치동 스포카 본사에서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트렌드를 분석해 앞으로 2-3년 내로 일본 시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스포카의 도도 포인트는 국내 3000개, 일본 20개 이상 매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도도 포인트는 매장의 POS 기기에서 성별, 연령, 구매목록 등 고객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다.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 뷰티숍, 학원, 골프장 등 멤버십 포인트 적립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업종이 도도 포인트의 제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숙박 앱 ‘아놀자’와도 제휴를 맺고 전국 2000개 지점에 도도 포인트를 도입하기도 했다.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 2012년 12월 GS홈쇼핑과 포스코로부터 12억원을 투자받은 이후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20억, 30억원을 투자 받으며 지금까지 총 누적 투자 금액만 70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제휴 매장 수는 지난해보다 벌써 2배나 늘어났으며 올해 말까지 4배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자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도도 포인트를 도입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취소율은 지금까지 1%가 채 되지 않는다. 100곳에 도입하면 이 중 99곳은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다. 손 대표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맹비를 줄 일이 없다”며 “매장에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성도 유망한 편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전체 시장에서 도도 포인트가 도입된 곳은 1%에도 못 미친다. 도도 포인트를 아직 도입조차 하지 않은 곳이 99%인 만큼 먹을 거리가 많이 남아있는 뜻으로 손 대표는 해석한다. 그는 “지금까지 개인 매장 위주로 제휴를 진행했지만 프랜차이즈와 협업해 다양하게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조성준·사진/신태현 기자 tiatio@

스타트업 꿈꾸는 그대 서울 강남으로 모여라

중기청 ‘팁스...네이버 D2 스타트업...’ 등 스타트업 창업지원·캠퍼스 잇달아 문열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가 새로운 스타트업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캠퍼스가 잇따라 문을 열며 예비 창업자들을 돕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팁스 캠퍼스’가 내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문을 연다. 팁스 캠퍼스는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사, 유관기관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이 한곳에 모여 네트워킹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강남권 창업지원센터 중 가장 큰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네이버가 역삼동 메리츠타워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젝트 공간인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개소했다. 네이버는 벤처 1세대로 이

곳에서 원천기술이나 개발 역량을 가진 초기 스타트업의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역시 캠퍼스 서울을 개소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갖췄다.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는 이번만이 아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아산나눔재단(마루180) 등 다양한 센터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이처럼 스타트업 지원센터가 강남권에 몰리는 것은 국내 벤처 붐이 시작됐던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데 기인한다. 1990년대 후반 국내 1차 벤처 붐이 일던 시절 엔씨소프트, 넥슨, 네이버,

다음 등은 모두 이곳 테헤란로에서 시작해 현재는 판교로 거점을 옮겼다. 과거 선배들이 일궈낸 영광을 후배 스타트업이 재현하기 위한 ‘성지’로 불린다는 분석이다.

또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나 지원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을 선호한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테헤란벨리가 제2벤처붐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과거 1세대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1시간 속성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B, J유엔제이 번역
한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 예측
- 중동의 발전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GS건설 올해 부산지역 공급예정 단지 ※자료: GS건설

지역	사업명	전용면적(㎡)	세대수	일반분양	분양시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자이 2차	37-84	813	489	6월
해운대구 반여동	수영강자이(가칭)	59-84	564	564	10월
연제구 거제동	거제자이(가칭)	39-84	847	535	12월
동래구 명륜동	명륜자이(가칭)	39-84	657	463	12월
합계			2881	2051	

‘럭키아파트’ 명성 잇자 부산 공략하는 GS건설

1989년 첫 진출 30년간 3만가구 공급 3년만에 4곳서 2881가구 대규모 분양 ‘해운대자이 2차’ ‘수영강자이’ 등 주목 재건축 수주도... ‘지역 명가’ 재건 나서

100% 조합원 물량 계약이 완료됐다. 김필문 GS건설 해운대자이 2차 분양소장은 “부산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외곽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미분양이 발생해 비인기지역으로 꼽혔으나 지난 해부터 공급 물량이 부족했던 원도심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져 수요자 관심이 높다”며 “특히 해운대자이 2차는 부산에서도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해운대구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인 만큼, 분양 전부터 관심이 뜨거워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S건설이 부산 아파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1989년 럭키화학공정터에 건립한 동래 럭키아파트로 부산에 첫 진출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약 3만가구 아파트를 공급해 이 지역 아파트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GS건설이 지방 분양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산에서 다시 한번 왕좌 탈환을 노린다. 이 건설사는 이번 달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서 분양하는 ‘해운대자이 2차’(813가구)를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총 4개 단지 2881가구를 공급하고 도시정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하반기 부산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2013년 3월 북구 금곡동에서 분양한 ‘신화명리버뷰자이’ 이후 약 3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물량 공급에 나선 것이다. 먼저 올해 첫 부산 공급물량인 ‘해운대자이 2차’는 해운대구 우동2구역에 재개발해 전용 37-84㎡ 총 813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 중 48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에 분양한 ‘해운대자이 1차’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1억 원 가량 가격이 상승하는 등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일반분양에 앞서 진행된 조합원 계약에서는 사흘 만에

“메르스 피해 가자” 분양일정 줄줄이 연기

GS호반 등 부천 옥길 건분주택 개관 보류 대우는 ‘상암... 푸르지오등 2곳 예정대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인파가 모이는 곳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때문에 일선 분양 현장의 일정 차질 역시 현실화되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에서 13개 현장에서 건분주택을 오픈하며 본격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가 좀처럼 진정국면에 들어서지 못하면서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기 부천에서 ‘부천옥길자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GS건설은 이번주 건분주택 개관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우려

가 커지며 분양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역시 이번 주에 부천 옥길지구에서 ‘부천옥길 호반베르디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호반건설도 분양을 연기하는 걸로 잠정 결정했다. 여기에 인천 대성베르홀의 분양을 준비중인 대성건설도 메르스 우려로 분양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주 3곳의 분양을 준비하던 대우건설은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모델하우스 준비가 늦어지는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를 제외한 상암DMC푸르지오 시티와 거제 센트럴 푸르지오는 일정대로 분양할 예정이다”면서 “메르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위생시설 등을 철저히 준비해 방문객들의 우려가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LH, ‘뉴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대림산업·금성백조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화성동탄2), 대림산업 컨소시엄(위례/대림산업 등 2개사), 금성백조주택(김포한강) 등 3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4월 23일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했다. 그 결과 3개 지구에 총 5개 업체가 신청했고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공정성 평가를 위해 특성분야 및 위원의 영향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평가위원수를 안배하고 평가담당 위원 선정 및 평가상황 녹화 등으로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뉴스테이 1차 공모 사업은 화성동탄2 1135호, 위례 360호, 김포한강 1770호 규모로 추진된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진흥기업’ 456억 인천공항 터미널·‘남광토건’ 400억 장고항 건설 재기 노리는 건설사, ‘공공 공사’ 수주 청신호

안정적 영업활동에 주가도 소폭 올라

재기를 노리는 건설사들이 잇따라 공공공사 수주에 나서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을 비롯한 중앙건설산업 등이 기업개신작업을 끝내고 지난 1분기 M&A에 성공한 가운데 기업개신작업(워크아웃) 상태인 중진 건설사들도 공공 공사 수주에 두각을 보이며 경영 정상화 속도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로 워크아웃이 종료됐지만 채권단에 의해 2년 연장이 된 진흥기업은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 2 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기공사 계약을 수주했다. 워크아웃 종료 상황이 아니라 판단 하에 재약을 한 이 업체가 이번 공공 공사로 체결한 계약금액은 456억원에 이른다. 이는 매출액 대비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같은 날 진흥기업의 주식은 전거래일 대비 7.27% 오른 금액에 거래됐다. 실제 진흥기업의 경우 지난 4월에도 한국수자원공사와 526억원 규모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제2공구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남광토건 역시 공공 공사 수주에 나서고 있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전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진흥기업은 지난 4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제2공구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액 자본잠식이 발생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지적성 실질심사를 받기도 했다. 이 회사는 지난 달 27일 조달청에서 발주한 약 400억원 규모의 장고항 건설공사 수주 계약을 따냈다. 충남 당진시 장고항리 일원에 항만 외곽시설 1194m, 접안시설 553m 등을 짓는 공사로 낙찰가는 411억원이며 이 중 남광토건의 지분은 전체의 80%인 323억원이다. 이는 전년매출액 대비 11.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루 뒤 이 건설사는 주식거래에서 장 초반 전일거래보다 2.38%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최근 공공부문 공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남광토건은 앞으로도 공공공사 수주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수주를 확보해 경영정상화를 견인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공사를 일단 수주하면 실제로 쌓여 앞으로 관련 공사를 수주하기가 수월하다”며 “(남광토건이나 진흥기업처럼) 재기를 노리는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수주를 한다는 건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실이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경진 기자jungji@

반려원 **녹십자** 녹십자
 제조원 **한중제약**

피곤해도 함께하는 멋있는 아빠가 되어주세요

SMART 비타민D를 더해 더욱 강력해진 비맥스 골드

비타민B는 물론 아연과 비타민D까지! 생체 이용률이 높고, 흡수 빠른 활성형 비타민 비맥스 골드로 건강하게 빛나는 오늘을 경험하세요!

활성형비타민
벤포티아민
50mg

칼슘흡수 및 뼈 건강에 효과
비타민D
1000 IU

아연의 보금
산화아연
30mg

피로해소를 위한
비타민C
200mg

SMART 기능성비타민제
비맥스 정
골드 B-max Gold t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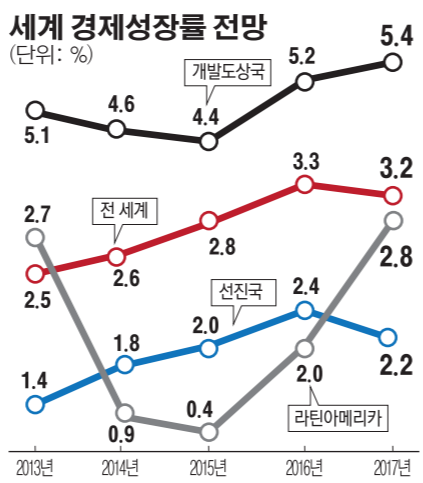
광고심의필 : 1289-17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IMF 이어 세계은행도 “美 금리인상 연기하라”

6월 경제 전망, 올 세계 성장률 3%~2.8% 하향 “美 긴축시 달러 강세로 신흥국 경기회복 악영향” 내년 상반기 권고... 시장은 9월 인상설에 무게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세계은행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늦출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18-19면 세계은행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6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면 자국은 물론 신흥국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경제가 평탄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신흥국들도 이른 미국의 긴축으로 인한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연준이 금리인상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세계은행은 권고했다.

앞서 IMF도 지난 4일 '미국 경제 연례협약' 결과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인상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해야 한다고 세계은행과 비슷한 결론을 냈다. 카우시크 바수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로부터 나오는 신호가 혼재된 것이 우려된다"며 "조기에 금리를 올리면 달러화 강세를 초래해 미국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연준에 자문하는 위치에 있다면 금리인상을 올해 말보다는 내년에 하도록 제안할 것"이라며 "다만 연준은 이런 권고에도 올 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날 전 세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종전의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은 3.3%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을 신흥국들이 차단한다는 전제가 바탕이 된 것이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의 3.2%에서 2.7%로, 내년은 3.0%에서 2.8%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종전의 1.1%에서 1.5%로 높아졌다. 일본은 1.2%에서 1.1%로 소폭 낮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7.1%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 인도는 7.5%로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0%로 제시했으며 개도국은 4.4%로 1월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세계은행은 올해 가장 최악의 성장세를 보일 지역으로 라틴아메리카를 꼽았다. 이 지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0.4%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세계 성장률 전망을 낮춘 요

인으로 유가 하락과 글로벌 자금조달 비용 상승 리스크를 꼽았다. 개도국은 1차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유가가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을 주도하면서 이들 국가의 전기와 교통망 등 인프라 정비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장기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신흥시장으로의 자본유입액이 지금보다 18~40%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시장은 연준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현행 'AA+'로 유지하면서 연준이 올 3분기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이 기간 7월과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한국의 경제 전망과 분석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18-19면

배준호 기자 baejh94@

중서부 판매 둔화에 글로벌 車업계 '시름'

중 차체 신규차량 등록 급감 1분기 등록건 120만대 그쳐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노른자위로 꼽혀 온 중국 서부의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자동차 판매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 서부지역 12개 성(省)의 신규 차량 등록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 떨어진 120만대에 그쳤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웨이스컨설팅의 자료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전역의 증가율인 15%를 밑돈 수준. WSJ는 최근 몇 년 동안 서부지역의 신규 차량 등록건수가 항상 전역의 등록건수를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서부 자동차 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차량 등록건수로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현황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별 1분기 신규 차량 등록건수도 부진했다. 쉘컨에서 집계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규 차량 등록건수는 3944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 급감한 것으로, 작년에 50% 증가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BMW도 같은 기간 9.1% 줄어든 5450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36% 급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동차 업체들이 실적을 회복하고자 도입했던 할인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정책관리자 푸 리훤은 "업체들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면서 "이는 나중에 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CAAM)가 조사한 결과 지난달에 차량을 처음으로 구입한 신규 고객 수는 160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불과 1.2% 늘어난 수치다. ▶관련기사 18-19면

서지희 기자 jhsseo@

사우디, 유가 하락 '모르쇠' 산유량 또 '사상 최대치'

5월 1033만 배럴 생산 2개월 연속 최대치 경신 원유 공급과잉 지속될 듯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급 과잉 불안에서 촉발된 국제유가 하락에도 아랑곳없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석유수출국 기구(OPEC)에 보낸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자국의 산유량이 하루 1033만 배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의 하루 1031만 배럴에 이어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사우디는 글로벌 원유 수요에 대응하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계속 산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FT는 풀이했다. 사우디 석유부는 "지난 3개월간 우리의 석유생산이 늘어난 것은 시장 상황, 특히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주요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OPEC은 6월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석유수요가 하루 9250만 배럴로 2014년의 9130만 배럴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달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속도

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비OPEC 국가들의 석유공급은 상반기의 증가세에서 하반기엔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OPEC은 "현재 공급 과잉 상황이 앞으로 수개월 안에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OPEC 회원국의 원유 수요가 올해 하루 293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유시장 트레이더들과 에너지리스트들은 OPEC 원유 공급이 하루 3100만 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잉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OPEC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날 열린 총회에서도 산유량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날 전일 대비 2.14% 급등한 배럴당 61.43달러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량이 전주보다 680만 배럴 감소한 영향이다. ▶관련기사 18-19면

교황이 워라시갈래... 딴 곳 보는 푸틴



바티칸시티를 10일(현지시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의 시선이 프란치스코 교황(오른쪽)과 대화 도중 바닥을 향하고 있다. 이날 교황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진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황과 푸틴 대통령은 2013년 첫 만남을 시작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며 무력 개입을 반대하는 교황을 지지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18-1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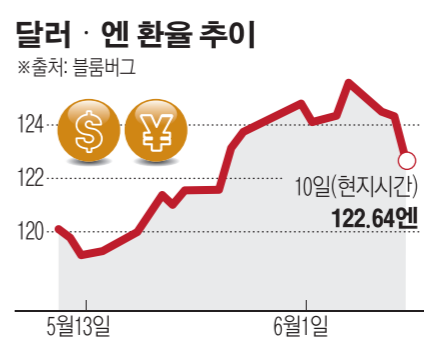
“추가 하락 없다” 구로다 ‘엔저 브레이크’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엔저’ 첫 공식 인정... 달러·엔 환율 122엔대 급락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엔저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엔화 가치가 더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엔저 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글로벌 외환시장을 뒤흔들었다. 구로다 총재는 10일(현지시간)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실효환율 측면에서 엔화 가치가 매우 낮아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일본의 금융정책 방향성의 차이를 이미 (외환)시장이 의식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인상이 실제로 이뤄진다고 해도 달러·엔저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총재가 엔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은 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해 엔화 약세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이날 구로다 총재가 엔저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향후 정책을 선회할 것이라 관측에 힘이 실렸다. 더불어 올해 BOJ가 추가 양적완화(QE)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관측도 후퇴했다. 엔저 현상의 지속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야기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자 미국 등 교역 상대국은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엔화에 대한 달러화 강세로 미국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지난 8일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엔저 현상은 많은 기업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달러 강세가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연준의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강달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으나, 해당 내용이 알려진 후 백악관은 금



공식 성명을 통해 해명을 내었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임명의 제보를 받지 말라고 강조했다. 구로다 총재의 발언 여파로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24.6엔에서 122엔대로 급등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도 엔화 가치는 달러에 대해 지난 3월 1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 강세(달러 약세)는 한국 원화 값에도 영향을 끼쳤다. 10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7원 하락한 1108.2원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18-19면

정혜민 기자 haemin2558@

S&P, 그리스 신용등급 또 강등

‘CCC+’서 ‘CCC’로 낮춰

‘독(毒)이 결국 약(藥)이 될까. 그리스가 구제금융 분할금 지원을 받아 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췄다. 반년이 다 되도록 국제채권단과 ‘탈당’을 하고 있는 그리스에게 신용등급 강등이 오히려 협상을 진전시키는 약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P는 10일(현지시간)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은 ‘CCC+’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B-’에서 ‘CCC+’로 1단계 강등한 데 이어 추가로 낮춘 것이다. S&P는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따른 강등”이라면서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리스 정부가 1년 이내에 채무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의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3차 회담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 발표됐다. 현재 그리스는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개혁안을 거부하고 있다. 채권단 역시 그리스가 제출한 경제 개혁안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 소식을 접한 양측 모두 협의를 논의하는데 이전보다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따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달 말 발표되는 구제금융을 내년 3월까지 9개월 연장하는 대신,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등 경제개혁 핵심 의제에서 양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18-19면

서지희 기자 jhsseo@

뉴질랜드, 기준금리 4년 만에 전격 인하

0.25%p 내린 3.25%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4년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뉴질랜드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RBNZ는 1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25%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레미 윌러 RBNZ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고 수요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 것은 타당하다”며 “추가 금리인하도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RBNZ는 내년 1분기 자국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3월 예상치 3.8%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그동안 RBNZ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 주택시장 버블 조짐에 금리인하를 억제해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결국 행동에 나선 것이다. 기준금리 금리인하에 뉴질랜드달러·달러 환율은 장 초반 70.19센트로 지난 2010년 9월 1일 이후 약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관련기사 18-19면

배준호 기자 baejh94@

애플뮤직, 발표 하루 만에 독점금지법 위반 제소 위기

미국 애플의 정예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이 공개된 지 하루만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 위기에 처했다. 미국 뉴욕과 코네티컷 2개 주의 법원은 애플이 8일(현지시간) 발표한 애플뮤직의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는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뉴욕과 코네티컷 2개 주의 조사는 음반업계가 공모해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 지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음악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최대인 유니버설뮤직그룹이 뉴욕 주 법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혀졌다. 유니버설뮤직의 변호인단은 이메일 서한에 조사 대상으로서 애플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자사는 애플과 공모하지 않았고,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그룹 등 경쟁사와 손잡고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법무장관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서한은 음악 스트리밍 업계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의 일부다. 이 업계의 경쟁을 촉진 소비자가 음악을 듣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이 시장이 공모 등 비경쟁 관행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33개 주 법무장관과 민간 원고단은 지난 2013년, 전자책 가격 인상에 공모했다며 애플과 미국의 대형 출판사 5곳을 고소했다. 당시에도 슈나이더만 장관과 코네티컷 주의 조지 켈슨 법무장관이 포함됐다. 이 사건은 결국 연방법원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결, 애플은 전자책 소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고 측과의 합의금으로 4억5000만 달러(약 4995억원)를 지불해야 했다. ▶관련기사 18-19면

배수경 기자 sue6870@

◆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 차장

배국남의 직격탄



메르스 유언비어의 두 얼굴

語가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이라는 원래 의미 외에도 사회의 감수성과 현실에 드러나지 않는 국민의 또 다른 여인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와 괴담이 입을 통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건 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괴담과 유언비어의 유통으로 불안과 공포 역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메르스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메르스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국민은 코웃음 친다. 국민은 유언비어보다 정부의 정보 독점과 통제가 불안과 공포를 더 부추긴다고 말한다. 유언비어의 유발자는 다름 아닌 메르스 발생과 확산 과정에서 무능과 무지로 일관하고 그것도 모자라 메르스 환자 동선과 치료 병원 등 국민이 정말 알아야 할 정보를 독점한 채 공개하지 않는 정부다. 물론 위기관리에 한계를 드러낸 무능한 정부 발표만을 전달하기에 급급한 언론도 유언비어 확산에 일조했다.

무능한 정부가 유언비어의 진원지이자 유발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그 정부가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을 엄단 하겠다고 나서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사회가 위기에 직 면하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도 정부와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위기와 불안이 가중 되는 상황에서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

가 제공되지 않고 은폐될 때 유언비어는 생겨나고 빠르게 유통 된다. 유언비어의 저자 시미즈 이쿠타로는 국민은 정보에 목말 라하는데 정부와 권력이 진실을 감추려고 하고, 언론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해 정보의 공급과 수용의 극명한 불일치가 일어날 때 등장하는 것이 유언비어라고 강조한다.

의혹만 쌓인 채 제대로 된 정보와 진실, 사실이 제공되지 않아 유언비어가 창궐했던 광주민주화운동에서부터 광주병 사태, 천안함 사건, 세월호 대참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이 단 적인 사례다.

정보와 현실 사이에 갭이 있을 때, 불안해진 사람들이 현실 을 어떻게든 해석하기 위해 갖가지 정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유언비어는 폐해가 크다. 하지만, 유언비어는 사회적 감수성과 국민의 잠재적 여론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초 역할도 한다. 시미즈 이쿠타로는 유언비어를 '잠재적 공중에 의한 '잠재적 여론'으로 보고,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권력에 비 관을 가하는 사회적 기능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유언비어 유포자 엄단에 앞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는 유언비어에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의 본질을 읽어 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숨겨진 여론과 민심을 파악해 대처해 야 한다. 유언비어 단속에 앞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능 과 무대책에서 벗어나는 게 유언비어 유발자인 정부가 최우선 으로 해야 할 일이다. 유언비어는 진실이 가려진 사회의 은밀한 속사정이기 때문이다.

knbae@

친구들아, 좇던 꿈을 이뤘는가

30여 년 만에 중학교 동창들이 모였다. 인심 좋은 중년 여성 분위 기의 배 나온 친구, 이름이 바뀐(준 미로 개명)한 춘자는 '춘자'라 부를 때마다 눈을 흘겼다) 친구, 키가 훌쩍 큰 친구 등을 보며 세월을 실감 했지만 어제 만났던 것처럼 이내 수다가 이어졌다.



논설위원 겸 대중문화 전문가

햇빛처럼 잔잔해야 할 중학 시절, 가난 때문에 고교 진학을 걱정 하던 친구와는 외락 안고 눈물을 쏟았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 외지의 산업체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친구다. 낮에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고, 밤에는 었드려 자는 친구들 틈에서 악착같이 공부해 지금은 중소기업 총무부장이다. 이틀만(친구의 요청으로 이틀을 바꿀 수 없는 게 아쉽다)이나 최선을 다한 그 시절의 눈부신 이야기에 울다 웃다를 반복했다.

이다. '좇다'와 '좃다'는 글 좀 쓴다는 사람들도 자주 틀리는 표현 중 하나다.

하지만 물리적 공간 이동의 유무만 구분해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해 직접 발걸음을 떼어서 옮기는 물리적 공간 이동이 있으면 '좃다'가 바른 표현이다. '좃고 좃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였다', '10대 청소년이 도망가는 도둑을 끝까지 좃아 잡았다' 등이 적절한 예문이다. 좃다는 또 '황소가 꼬리를 흔들며 등에 붙은 파리를 좃았다'와 같이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내몬다는 의미도 있다.

반면에 '좇다'는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그 남자는 사랑보다 명예를 좃았다', '열다섯 소녀는 선생님의 의견을 좃기로 했다' 등의 예처럼 이동의 개념은 있지만 직접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는. 그녀의 시선은 멀어져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좃고 있었다처럼 눈여겨보거나 눈길을 보낸다. '친구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린 시절 기억을 좃고 있었다'와 같이 생각을 하나하나 더듬어 간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동창은 같은 장면 아래에서 배운 사람으로, 같은 스승 아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손을 일일이 잡으며 "꿈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가을 하늘은 슬프도록 맑았다. 휴대폰이 없었던 아날로그 시절, 서로 연락하고 지내진 않았지만 각자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다. 그런데 꿈은 좃는 걸까, 좃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꿈은 좃는 것

jsysh@

하루 한 생각 6월 11일

顛沛匪虧(전패비휴) 아무리 위급한 경우라도 잘 대처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늘어나고 괴담이 번지면서 공포와 불평이 커지는 데도 정부의 대처는 우왕좌왕 허둥지둥이었다. 전돈낭패(顛頓狼狽), 얻어지고 자빠지며 갈광질광하는 형국이었다. 전은 얻어지는 것, 돈은 자빠지는 것이다.

낭패는 전설상의 동물이다. 낭(狼)은 뒷다리가 두 개 없거나 짧고 성질이 흉포하지만 패가 부족하다. 패(狽)는 앞다리가 두 개 없거나 짧고 순하며 패가 많다. 걸을 때면 패가 주도해야 하는데, 서로 고집을 피울 경우 움직이지 못해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

목은 이색은 48행이나 되는 시 자송사(自訟辭)에서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다. "네 몸

애소하고 못생겼음이어/남 보기에 곧 넘어질 것 같으리/보는 게 짧은 데다 듣는 것도 어두워/남의 소리 들으려면 좌우를 돌아보네"[汝之軀矮而陋兮 人視之若將仆也 視既短而聽又聵兮 中人聲而左右顧也] 중간 부분에 "오직 나만 전도낭패함이어/선을 주로 삼는 순일함을 몰랐이라/오직 순일함에 할 줄 모름이어/저 금수의 무리와 무엇이 다르랴"[惟吾之顛頓狼狽兮/莫知主善之克一也/夫惟一之罔知協兮/禽獸之歸而何擇]라고 했다. 자세히 읽어보면 자부심의 표현이다.

얻어지고 자빠지는 걸 전패(顛沛)라고도 하는데, 논어 이인(里仁)편에 이 말이 나온

다. "군자는 법 따기를 끝내는 동안에도 인자함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주 급한 때라도 깨끗이 인자해야 하고, 얻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또한 그래야 한다."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

이 문장을 인용한 게 천자문의 '절의엄퇴 전패비휴(節義嚴退 顛沛匪虧)'다. 匪는 아닐 비, 虧는 이지러질 휴이니 절도 의리 청렴 겸양을 이지러뜨리지 말라는 뜻이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라도 잘 대처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제각각이던 정부와 지자체가 메르스 대처에 손발이 맞춰가는 듯해 다행스럽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오늘의 배국남

www.baekn.com

투병생활 마치고 새 앨범 낸 장재인

배국남닷컴은 10일 가수 장재인을 만났다. 장재인은 이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새 미니앨범 '리퀴드'의 청음회를 열었다.

장재인은 2003년 근긴장이상증 발병 후 활동을 중단하고 투병했다. 장재인은 "몸이 안 좋았던 만큼 노래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앨범"이라며 발매 소감을 밝혔다. 장재인은 이번 앨범에 수록된 6곡 모두를 작사했다. 그는 "윤종신 PD가 가사 쓰는 것을 제안해 주셔서 전곡을 다 썼다"며 "제가 쓴 가사에 많이 칭찬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재인의 타이틀곡 '밥을 먹어요'는 윤종신이 작곡하고, 장재인이 작사한 노래로 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낸 후의 상황을 그린 곡이다. 그는 타이틀곡에 대해 "주체적인 여자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며 "여러 이야기가 섞여 제안에서 나온 곡"이라고 설명했다. 장재인은 12일 KBS 2TV 음악프로그램 '유혹의 스케치북'으로 이번 앨범 활동을 시작한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온라인 와글와글



중국서 9만원대 샤오미 스마트폰 불티, 한국엔 안 나오나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의 홍미2 시리즈가 자국 시장에서 출시 다섯 달 만에 누적 판매 1300만대를 돌파했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 성능 역시 타사의 스마트폰에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리즈 가운데 가장 저렴한 기종인 홍미2A는 80달러(약 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온라인 상에는 "진짜 가격 하나는 세계 톱이다.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 안달나게 만들어 파는 저가형 스마트폰. 한국 업체들도 저런 제품 한번 만들어 보라

고 권하고 싶다", "소비자 입장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을 국내에도 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안타깝다. 팬택이 한국의 샤오미가 됐어야 했는데", "샤오미를 좋아하면 한국경제가 위태롭고 삼성을 좋아하면 내 지갑경제가 휘청대지", "워낙 시장이 크니까 저 정도 값으로 팔아도 수익이 난다는 소리. 후발 스마트폰 업체들 사업 하긴 정말 좋은 환경이네", "9만원이면 블루투스 이어폰 가격인데, 정말 충격적이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알에스스포츠 TEL. (02)3280-9607

박기성 칼럼



사법적 보수주의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몽펠레르 소사이어티 회원

1987년 여름 어느 늦은 저녁 필자는 미국국영방송(PBS)에서 보크(Robert Bork) 판사의 대법관 인준 관련 상원 청문회의 녹화 중계를 보게 되었다. 미국 사법계에는 사법적 보수주의(judicial conservatism)와 사법적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의 두 흐름이 있다. 사법적 적극주의는 판사의 판결이 현행 법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의 의견이나 정치적인 고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인데 비해 사법적 보수주의는 판사 개인의 의견이나 정치적 고려를 최대한 억제하고 현행 법에만 의존하여 판결하고 법의 제정은 입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이다. 보크 판사는 사법적 보수주의자로 재량권을 억제하고 헌법과 법에 따라야만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사의 임무는 판결하는 것이지 판사석에 앉아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크 판사는 공정거래법 전문가로도 유명하다. 기업합병은 종종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금지하는 기존 공정거래법은 경제학적으로 비합리적이고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즉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이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합병이 독점

도를 높여도 소비자이익이 증대된다면 용인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독점과 관련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1970년대 이래로 큰 변화가 있었다.

1987년 7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보크 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하였을 때 흑인 등 소수민족들은 그의 사법적 보수주의 견해가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관 인준에 반대하였다. 그날 청문회에는 보크 판사를 지지하는 스탠퍼드 법과대학원의 흑인 교수가 나와서 증언하고 있었다.

미국 대학들은 1960년대부터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소수민족들에게 할애하는 할당제(quota)를 시행해 왔다. 이 교수는 이런 제도를 통해 MIT 대학에 입학한 흑인 학생 4명 중 1명이 성적 불량으로 졸업 못하고 MIT를 졸업한 흑인도 노동시장에서 MIT 졸업생이 아니라 할당제도에 의해 졸업한 자로 취급된다고 지적하였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이 흑인 학생들은 실력에 맞는 주립대학을 졸업해서 변호사 등 번듯한 직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과연 이들을 도와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교수는 소수민족들에게 이렇게 호의(favor)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취급해 주는 것(equal treatment)이 진정으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이런 입장에서 보크 판사의 사법적 견해와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관 인준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크 판사는 인준을 얻지 못하였다.

사법적 보수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판사의 과도한 재량권은 국민들에게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2013년에 통합진보당의 당내경선 대리투표와 관련된 1심 법원들의 판결들이 서로 상반되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대리투표가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관해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조직적 행위가 아니라 가족, 친척, 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이 벌인 통상적 대리투표로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부산지법, 광주지법, 대구지법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민주제도의 근간인 정당 내에서의 경선과 관련하여 대리투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조차 불확실하다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단체의 장을 선출하겠는가. 마찬가지로 노사관계 등에서 기업이 내리는 결정들이 적법인지 불법인지를 사전에 어느 정도 알지 못하고 사후 판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이 넓을수록 기업 활동은 위축된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흑인 학생들이 "너 읽을 줄이나 아니"라는 치욕적인 말을 백인 학생에게 들었다는 등의 여러 모욕적인 사례들을 사진전을 열어 고발하였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보크 판사를 지지했던 흑인 교수가 머리에 떠올랐다. 흑인 학생들을 백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취급해 주는 것이 흑인 학생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이 컸기에 맴돈다.

설경진의 루머속살

자본시장부 차장

변동성 커지는 주식시장

오는 15일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주식시장 안팎의 참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하한가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우선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스타트업 운영사들과 이용자들이다.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면서 고금리 이자를 받는 스타트업은 9조원대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가격제한폭 확대에 위협 관리는 물론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스타트업 업체들은 상·하한가 확대에 따라 최저 담보비율을 종전 115%에서 120%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1000만원 대출을 받은 스타트업 이용자는 1150만 원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면 되던 것이 1200만원을 유지해야만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정이 위험관리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120% 담보비율을 유지한다고 해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거래 없이 하한가로 곤두박질칠 경우 스타트업 업체들은 원금 회수도 못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래 가능 종목들 좀더 보수적으로 한계 짓고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로스컷(손절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동 사채시장도 울상을 짓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동안 사채시장에서는 1000만원을 가지고 가면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사채업자들은 스타트업과 달리 매매 종목의 제한도 없고 계좌에서 한 종목만 모두 매수해도 되는 등의 이점을 무기로 말 그대로 사채 이자를 받아왔다.

하지만 가격제한폭 확대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명동 사채시장에선 1000만원을 가지고 가면 1000만원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종목제한도 없고 투자비를 제한도 없어 자칫 종전대로 원금의 두 배 이상을 빌려줄 경우 하한가 하루 이틀이면 대출 원금까지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보다 작게는 몇 배에서 몇 십배의 이자를 내면서 대출금액도 작은 사채시장을 과연 누가 이용하겠나며 주식담보대출 사채업은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

상장사 인수 자금을 대주던 사채업자 역시 상·하한가 확대에 자금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신규 대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보다 기존에 대출로 풀려 있는 기업인수자금과 주식담보대출 회수가 걱정이라며 회수를 독촉하고 있다고 한다.

투자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른바 투기성 거래방식인 '상대(상한가 따라잡기)' 매매 방식으로 투자를 해 오던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상·하한가 확대에 따라 반대매매 출회에 따른 일시적인 급락을 이용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일명 '낙타매매'로 낙타 등과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뤄질 때를 노린다는 것이다.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일이 나올 것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투자자들은 하루 최대 86%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고 46%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란 위험이자 기회에 이에 적응하려는 시장 주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시장 효율성 확대와 거래 활성화, 시장 건전성 등을 이유로 상·하한가 확대에 나선 금융당국의 이번 정책으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과가 크지 않기를 바란다.

skj78@

스타 에세이

도 지원 배우

중학생 때 결심했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도지원입니다. 제 중학교 때 예피소드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자 합니다.

아무도 없는 교정이었지요. 햇빛이 드는 그곳을 거닐면서 '교복을 입고 있는 이 시간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돌아올 수 없겠구나'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소중한을 아는 마음을 간직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어린 시절 제가 보던 어른들은 늘 생활에 쪼들려 있는 모습이 한결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아야지.' 그때 제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선화예고에 진학해 발레를 했던 저는 누구의 결정도 아닌 오로지 제 선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온 좋게 국립발레단까지 가게 됐지요. 그랬기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배우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이 비해 늦게 배우가 됐지만, 자이를 잃지 않고 지금껏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배우가 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제

게 '너도 곧 변하겠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 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직장이 나 어딜 가든 어떠한 환경에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100%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요. 완전히 틀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합류는 하되 자신의 고집을 지켜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예인이고 배우라고 하면 막연히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과 약속했기에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처음 화장품 모델로 발탁됐을 때, 그 순간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다짐했습니다. '오늘부로 발레리나가 아니라, 배우를 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고 말이지요. 앞으로 '몇 살까지 연기할 거예요?'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진행형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순간 최선을 다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기자수첩

구 성 헌 부동산시장부/carlove@

수익형부동산, 환상은 금물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기웃거리고 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접어든 지 오래되면서 '은행금리보다는 낮겠다'란 생각과 함께 최근 낮아지긴 했지만 수익률 지표도 여전히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통합 정보사이트인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9만5939동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며 건설사들 역시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꾸준히 시장에 내놓고 있다.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 역시 크게 올랐다.

실제로 최근 서울 마곡지구, 마포 등에서 분양한 오피스텔들은 23-25㎡의 분양가가 2억-3억원에 달하고 있다. 물론 정상적으로 임대료가 이뤄진다면 은행이율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들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특히 민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경우 공실률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데, 이 경우 수익률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토부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조사 결과를 보면 투자수익률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투자수익률 역시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 국토부가 매달 공개하는 상가 수익률은 표본 빌딩 1층 임대료만 조사해 계산한다. 통상 다른 층보다 임대료가 2배 이상 높고 공실도 잘 안 생기는 1층만을 기준으로 투자수익률을 산출하면 고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실제로는 수치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통용되는 용어 중 '고수익 고위험'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예외가 아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여전히 좋은 투자처인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자들의 헤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아버지의 뒷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자식과 육하면 참아왔던 이야기를 무한 반복하시는 아버지의 평범해서 특별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빠의 행복을 부탁해

서진원 지음 | 208쪽 | 13,000원

신간



뻘하지 않게 진부하지 않게 당신의 뜨거운 마음을 전합니다!

"간혹에게 주는 것만 익숙하고 받는 것은 어색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아빠, 이제 받을 차례야. 위로받을 차례."



더위에 지친 피부... 헝가리 스파서 '수분충전'하세요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42 오모로비짜



Omorovicza, BUDAPEST

무어 머드 컬렉션- 테르말 클렌징 밤



테르말 클렌징 밤(Thermal Cleansing Balm)은 헝가리 온천수와 무어 머드가 자극 없이 각종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준다. 온천수의 미네랄이 표피에 안정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드로 미네랄 트랜스퍼런스 시스템을 적용했다. 헝가리 온천수의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피부의 수분을 채우고 환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바꿔준다. 주요 성분으로 헝가리안 무어 머드가 함유돼 워터프루트 마스크라를 포함한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클렌징해주고, 피부결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바꿔준다. 또한 스위트 아몬드 오일이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보습을 더해주고 온천물 플라센 향이 클렌징 후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골드 컬렉션- 퀸 오브 헝가리 미스트



퀸 오브 헝가리 미스트(Queen of Hungary Mist)는 오모로비짜 컬렉션 중 스테다셀러 아이템이다. 수분 토너 겸 스킨 미스트로 피부 진정에 뛰어나며, 즉각적인 수분공급으로 촉촉하고 부드럽게 피부를 바꿔준다. 이 제품의 향은 14세기 헝가리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한 세계 최초의 향수 '헝가리 워터'가 모티브다. 헝가리 온천수와 함께 다마스쿠스 장미수가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향이 매력적이다.

블루 다이아몬드 컨센트레이트



블루 다이아몬드 컬렉션은 브라이트닝을 원하는 이에게 추천한다. 이 중 블루 다이아몬드 컨센트레이트(Blue Diamond Concentrate)는 고농축 세럼으로 헝가리 온천수 베이스와 함께 미세 다이아몬드 입자가 피부를 부드럽고 생기 있게 바꿔준다. 미세 다이아몬드는 피부 세포의 스트레스를 줄여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부 세포의 건강에도 좋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이 즉각적인 탄력을 선사하고, 피부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성분이 과잉 생성되는 피지 조절과 모공 속 독소를 배출시킨다.



오모로비짜 연혁

1800	2005	2009	2014	2015
오모로비짜 가문 라츠 스파 설립	오모로비짜 설립, 무어머드 컬렉션 출시	골드 컬렉션 출시	뷰티 멀티스토어 벨포트에 공식 론칭	블루 다이아몬드 컬렉션 출시, 페이스 컬렉션, 보디 컬렉션 출시

헝가리 온천수 브랜드 '오모로비짜(Omorovicza)'는 2000년 전 고대로마 시절부터 사랑받아 온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온천수로 만든 화장품 브랜드다. 세계에서 미네랄이 가장 풍부하기로 유명한 부다페스트의 온천수가 유럽을 뒤흔든 프리미엄 브랜드로 탄생한 것은 한 여성의 직관 덕분이다. 20세기 말 외교관으로 전 세계를 누볐던 마가렛은 오모로비짜 가문의 백작인 스테판 오모로비짜와 사랑에 빠졌고, 오모로비짜 가문에서 운영하는 라츠 스파(RACZ SPA)에 몸을 담은 순간 밝아진 안색과 부드러운 살결에서 그 가치를 알게 됐다. 마가렛은 이후 오모로비짜 가문의 정통성과 헝가리 온천수에 대한 과학적 재해석을 통해 화장품 오모로비짜를 탄생시켰다. 현재 오모로비짜는 유럽·미국의 럭셔리 뷰티숍에서 고객이 사랑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1800년대부터 오모로비짜 가문이 운영해 온 최고급 온천인 라츠 스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해 있으며, 유럽의 로열 패밀리를 비롯해 헝가리를 찾는 전 세계인들에게 온천수의 뛰어난 피부 치유력으로 사랑받고 있다. 부다페스트는 세상에서 자각이 가장 얇은 곳으로 온천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곳 온천은 얇은 지각층 때문에 미네랄이 모이고 온천수가 높고 나오기 쉬워 질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다. 이 온천은 고대로마 시절부터 미용과 힐링을 위해 귀족들이 즐겨 찾은 곳으로, 부다페스트 온천수는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는 것은 물론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힘을 잃지 않게 도와준다. 오모로비짜는 마치 온천수 스파를 하듯 바르는 순간 맑고 부드러운 살결로 바뀌어 일반적인 화장품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을 선사한다.

◇뷰티 미네랄 뷰티를 완성하는 핵심 가치 = 오모로비짜의 자부심은 200년간 부다페스트에서 최고급 온천으로 사랑받아 온 라츠 스파의 정통성을 화장품에 그대로 구현했다는 점이다. 화장품 정제수는 화장품에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기본 성분이자 중요한 요소다. 오모로비짜는 영양성분이 없는 일반 정제수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100%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온천수를 정제수로 사용한다. 라츠 스파의 온천수 힐링 효과를 화장품 통해 느껴볼 수 있다.

200년 역사 미네랄 온천수로 만든 화장품 노벨상 연구원 참여... 최상의 테라피 효과 온천수·무어 머드·골드·다이아몬드 원료로 美·英 등 24개국 글로벌 셀럽 사랑 한몸에

또한 질 좋은 미네랄 워터에 혁신적인 기술력을 더해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로 격을 높인다. 오모로비짜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헝가리 데마볼로지 출신 연구원들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헝가리 온천수의 뛰어난 성분을 피부에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데마볼로지 연구소의 미네랄 전달 시스템인 하이드로 미네랄 트랜스퍼런스 시스템을 적용해 온천수의 순수 미네랄을 표피에 안정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최상의 테라피 효과를 선사한다.

또한, 7가지 피부 유해성분인 파라벤과 폴리메틸렌글리콜, 페트로케미컬, 살리실, 소디움 라우레스 설페이트, 인공 색소, 인공 향 등을 배제해 원료가 전달하는 순수함을 높였다. 이와 함께 헝가리 대표 온천 호수인 헤비츠 호수에서 안데스 산맥에 이르기까지 세계 청정 지역의 진귀한 원료를 사용해 피부에 자극 없이 건강함을 전달한다.

◇벨포트에서 만나는 뉴 오모로비짜 컬렉션 =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온천수를 기본으로 무어 머드, 골드, 다이아몬드 등을 최고급 원료를 더한 오모로비짜의 프리미엄 컬렉션에 이어 새로운 오모로비짜 페이스 컬렉션과 보디 컬렉션이 탄생했다.

페이스 컬렉션에서는 헤비츠 온천호수 무어 머드에서부터 화이트루핀, 다마스쿠스 장미수, 규조토 등 내추럴 성분의 순수함을 그대로 전달하는 클렌저, 세럼, 에멀전을 만나볼 수 있다. '젠틀 버링 클렌저'는 미네랄이 풍부한 규조토와 열대 과일 추출물이 함유돼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안색을 밝혀주는 필링 클렌저다. '리파이닝 페이스

폴리셔'는 피부 청정 세안 팩으로 헤비츠 온천수의 무어 머드가 각질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공급해 줘 피부 색 개선에 도움을 준다.

오일 프리 세럼인 '래디언스 리뉴얼 세럼'은 화이트 루핀 성분이 안색을 밝혀주고 지친 피부에 활기를 더한다. 탄력 케어에 도움을 주는 세럼으로는 '로즈 리프팅 세럼'이 좋다. 다마스쿠스 장미수와 루비 크리스탈, 씨 메이워드 성분이 얼굴에 즉각적인 탄력 및 활력을 부여해주는 리프팅 세럼이다.

보디 컬렉션은 헝가리 온천수 베이스에 콜로이드 골드, 시아버터, 비타민C, 살구씨 오일 등을 함유한 보디 크림, 립밤, 핸드 트리트먼트 등을 선보이고 있다. '퍼펙팅 립 밤'은 시아버터, 유칼립투스 오일, 히알루론산 필링 스피어가 입술에 수분을 공급해 생기 넘치는 볼륨감을 부여해준다. '쉐이빙 크림인 '수딩 셰이브'는 플럼 아몬드와 살구씨 오일 등 천연성분이 함유된 저자극 제품으로 면도로 자극받기 쉬운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너리싱 핸드 트리트먼트'는 비타민C 성분이 함유되어 다크 스팟을 줄여주고, 살구씨 오일과 시아버터가 피부 속 수분을 지켜줘 피부결을 부드럽게 바꿔준다. '보디 크림'은 플럼 아몬드 오일, 쌀눈 오일, 오메가 6 세라마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어 지친 피부에 탄력을 부여해주는 데일리 영양크림으로 좋다. 스페셜 케어를 위한 보디 스크럽 '골드 슈가 스크럽'은 금을 초미세 입자로 만든 콜로이드 골드 성분과 사탕수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피부의 미세한 손상을 회복시켜 준다.

오모로비짜의 제품은 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 영국의 헤르즈백 화점 등 세계 24개국 최고급 화장품 숍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세계 유수 브랜드를 소개하는 뷰티 멀티스토어 벨포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배우 이승기가 오모로비짜 국내 공식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명 벨포트 전무는 "오모로비짜는 '부다페스트에서 온 미네랄의 축복'이라 불릴 만큼 풍부한 미네랄 함량을 자랑한다"며 "온천수의 차원이 다른 수분감과 함께 무어 머드, 골드, 다이아몬드 등 최고급 원료가 선사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를 경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lsa@

세븐에이트

동성제약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전, 오늘 세븐에이트 해요”

편하고 부담없이 자연스러운 느낌 - 세븐에이트

새치커버는 물론 스타일리시한 헤어컬러까지... 최신 트렌드에 맞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스타일에 따라 용도에 맞게 골라 쓰세요

1 세븐에이트 헤어 마스크리 | 세븐에이트 무염료 컬러크림 | 세븐에이트 편한염색
2 세븐에이트 샴푸 컬러크림 | 세븐에이트 쉬운염색 |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 스프레이

4호 (자연스런 밤색) 5호 (자연스런 갈색) 6호 (자연스런 갈색) 7호 (자연스런 흑갈색)

1 소비자상담실 | 080-547-3571

*세븐에이트는 가까운 약국,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븐에이트 전속모델 | 텔런트 차 화 연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 기술력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10번 아이언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BIG BANG Longdistance

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종전의 6번 아이언 거리를 이제 10번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골프업계 4년연속 매출신장을 1위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 40yd 더 나간다.
-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세계에서 제일 가볍다. - 스윙 밸런스가 10포인트 낮은 B3 도 가능
- 출발 백스핀 1.12배, 착지 백스핀 3.5배 증가
- 스윙이 쉽고 편하다.
- 뒷땅이 없다.
- 엘보우가 없다.
- 벙커 안에서도 페어웨이처럼 어프로치샷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언 11번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극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비거리가 30~40yd 증가
뱅 Longdistance 470 Driver · Fairway WOOD · Hybrid IRON (Hybrid WOOD)
골프 해설가 75%, KL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美 금리인상 길목 '에클스의 실수' 트라우마

1937년 에클스 의장 "대공황때 푼 달러 회수" 성급한 출구전략, 주식 폭락·국채금리 치솟아 세번째 지준을 인상했 미국 다시 대공황 빠져 2013년 버냉키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에 신흥국 통화·채권·주식 '트리플 쇼크' 회오리 금리인상이 세계경제 악영향 줄까 예의주시

"중개인들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내질렀다. 서로 머리를 휘어잡기도 했다. 거래소의 각종 설비들은 말뚝을 일으켰다. 주가표시기도 작동을 멈췄다. 통화량 폭증으로 전하는 불통이었다. 장을 마치고 두 시간 만에 겨우 작동된 주가표시기에 나타난 다우지수는 시장을 공황으로 내몰았다." GMO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에드워드 캔슬러의 저서 '금융투기의 역사(Devil take the hindmost, 2001)' 중 1929년 10월29일 '월가 대폭락(Wall Street Crash)'으로 패닉에 휩싸인 뉴욕증권거래소의 풍경을 그린 대목이다.

1929년 9월3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381.17로 거래를 마칠 때까지만 해도 '월가 대폭락'과 뒤이은 '대공황'을 예견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유동성에 한껏 취한 시장은 당대의 비판론자인 로저 바스 에널 리스트가 "과국이 눈앞에 왔다"며 주가 대폭락을 예언했음에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는 "시장이 정상작업을 일으키고 있다"며 "주가는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고원의 경지에 도달했다(Stock prices have reached what looks like a permanently high plateau)"라는 유명한 예언으로 시장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셔의 예언은 보기 좋게 비껴갔다. 그의 발언 불과 2주 후 다우지수는 처참하게 주저앉았다. 10월24일 11% 폭락을 시작으로 10월28일과 29일 이틀간 다우지수는 각각 12.82%, 11.73% 폭락했다.

제너럴모터스(GM) 설립자 윌리엄 듀런트는 록펠러 가문 등과 공조해 시장에서 대량의 주식을 사들였지만 대폭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시장은 하루 만에 140억 달러(약 16조원)를 잃었고, 1주일 간의 손실은 3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예산의 10배가 넘는 규모이자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쏟아 부은 액수보다 훨씬 많은 규모였다.

1929년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7%대의 호황이었지만 주가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급전직하, 1932년에는 마이너스(-)13%라는 역성장장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고 물가상승률도 심각했다. 1929년 제로(0) 성장률을 보인 물가는 1931년부터 마이너스 수준에 접어들어 4년 만에 무려 24%나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것이 금융 당국이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는 1928년 2월부터 1년반 만에 3.5%였던 기준금리를 갑자기 6%까지 끌어올리면서 돈을 졸을 바짝 줬다.

심각한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마련이지만 연준은 당시 금분위제 하에서 달러에 대한 투기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인상 쪽을 택했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미국 내 투자가 유리해져 국외로의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연준의 지론이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금분위제 하에서 통화 공급은 금의 공급에 의해 좌우된다. 경제

역대 연준 의장

대	이름	재임기간	대통령
1	찰스 헨리	1914년 8월 10일 ~ 1916년 8월 10일	우드로 윌슨
2	윌리엄 하딩	1916년 8월 10일 ~ 1922년 8월 9일	우드로 윌슨, 워런 하딩
3	대니얼 크리시어	1923년 5월 1일 ~ 1927년 9월 15일	워런 하딩, 칼빈 쿨리지
4	로이 영	1927년 10월 4일 ~ 1930년 8월 31일	칼빈 쿨리지, 허버트 후버
5	윌리엄 맥키스니 마틴 2세	1930년 9월 16일 ~ 1933년 5월 10일	허버트 후버, 프랭클린 루즈벨트
6	유진 블랙	1933년 5월 19일 ~ 1934년 8월 15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7	마리너 에클스	1934년 11월 15일 ~ 1948년 1월 31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해리 트루먼
8	토머스 맥카버	1948년 4월 15일 ~ 1951년 3월 31일	해리 트루먼
9	윌리엄 맥키스니 마틴 2세	1951년 4월 29일 ~ 1970년 1월 31일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리처드 닉슨
10	아서 번스	1970년 2월 1일 ~ 1978년 1월 31일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11	윌리엄 밀러	1978년 3월 8일 ~ 1979년 6월 6일	지미 카터
12	폴 볼커	1979년 8월 8일 ~ 1987년 8월 11일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13	앨런 그린스판	1987년 8월 11일 ~ 2006년 1월 31일	로널드 레이건, 조지 H. 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14	벤 버냉키	2006년 2월 1일 ~ 2014년 1월 31일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15	재닛 옐런	2014년 2월 1일 ~ 현재	버락 오바마



마리너 에클스 제7대 연준 의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통화공급량이 늘고 금리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고정환율제는 필연적이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금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는 한 해외에서 통화 공급이 이뤄졌어야 했다. 해외에서 금을 더 유입시켰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경제는 더 치명상을 입었다. 물가가 마이너스 수준인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서 실질 금리가 급등,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마저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는 더욱 악화했다.

그러다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함께 금분위제가 폐지되고 1933년 3월을 바닥으로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1937년 마리너 에클스 당시 연준 의장은 지급준비율을 세 차례 연속 올렸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푼 달러를 회수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성급한 출구전략이었다. 두 번째 지준을 인상 시점부터 경제는 다시 후진했다. 주식시장은 그해 3월에만 10% 이상 빠졌다. 같은 시기 0%에 머물던 단기 국채금리는 0.5%까지 치솟았다. 2.5% 수준이던 10년물 금리도 2.8%대를 넘겼다. 그럼에도 에클스는 세 번째 지준을 인상을 단행했다. 여기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우려해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미국 경제는 다시 대공황에 빠졌다.

이것이 유명한 '에클스의 실수(Eccles's failure)'다. 나중에 에클스 의장은 자신의 무지를 시인했다.

경제학자인 로버트 라이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저서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After Shock, 2011)'에서 에클스 의장이 당시 "17년 간 금융과 생산 세계에서 활동하고, 그 기술을 알아 가면서 그 경제 적·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무지를 고백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내가 돌팔구를 찾길 기대했지만 내가 나 자신 안에서 찾아낸 건 절망뿐이었다"고 고백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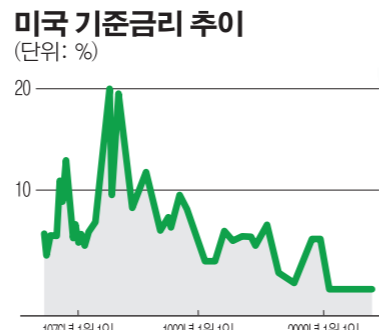
대공황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고비를 넘기며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연준. 지금 연준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양적완화를 회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자 세계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마약중독자처럼 금단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하자 신흥국의 통화와 채권·주식이 모두 가파르게 떨어지는 '트리플 쇼크'가 발생한 것이 일례다.

이미 주시위는 던져졌다. 연준은 선부터 금리인상으로 '에클스의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미국 경제 상황은 연준을 출구로 이끌고 있고, 시장은 이런 연준을 우려의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활주로에 선 엘런 '리프트 오프' 타이밍은 언제?

제로금리 6년, 실물경제 불균형 심각 경고속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연내 인상론 제동

"Sell in May and go away(5월에 팔고 떠나라)."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자주 회자되는 중시 격언이다. 지난달엔 이 격언이 보기 좋게 빛났다. 지난 5월 세계 증시는 연초 랠리를 뒤로 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과 그래픽스(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북미 지역에선 5월 한달 동안 279억1600만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와중에도 뉴욕증시는 꾸준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5월 들어 사상 최고치를 각각 네 차례, 두 차례나 같이치웠다. 나스닥지수 역시 15년 만에 5000선을 넘어 5100선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강세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이 고난이도 수수께끼의 해답은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결정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준은 올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작년 12월 널

은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본격적인 출구 찾기에 나섰다.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이 6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의 확대 국면이 절정에 접어들었을 것란 판단 때문이다. FOMC 위원들은 첫 금리인상을 제트기의 이륙에 빗대어 '리프트 오프(lift off)'라고 부른다. FOMC가 제트기에, 양적완화(QE)로 사들인 대량의 채권을 싣고 활주로까지 유도한 것이 작년 10월 말이다. 벤 버냉키 전 의장이 QE를 주도해 달러를 공급하면서 대량으로 살포하는 역할이었다면 옐런 의장은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제트기 가장 역할을 맡은 셈이다. 문제는 '리프트 오프'의 적절한 시점이다. 올 4월 FOMC 후 연준은 "노동시장이 더 개선되고, 물가가 목표치인 2%로 움직인다는 합리적 확신을 가진 뒤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현재 미국 경제 펀더멘털을 봤을 때, 호황이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실업률은 하락 기조에 있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이 인상되면서 앞날에 대해서 낙관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 1분기(1~3월) 경제가 0.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오면서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론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월가에서는 금리인상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하는 가운데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 1%로 유지하던 10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다.

여기서 연준의 딜레마가 드러난다. 금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경기가 정점에 있을 때 최종적으로 금리인상을 모색하지만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금융완화 아래에서 첫 금리인상이 곧 마지막 금리인상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린 이후에도 경기가 순항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전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2006년 6월에 마지막으로 금리인상이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주택 거품이 붕괴 과정에 진입했고, 다음해인 2007년 10월 뉴욕 증시가 정점을 찍은 후 2개월 뒤 본격적인 경기 침체기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제로 금리를 6년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시장에 비정상적인 거품이 아무 제약 없이 비대해졌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거품 팽창 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변형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면에도 빈부 격차 확대 등 매우 심각한 불균형이 생성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연준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시행착오들 또 반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제지표 호조에 맞춰 즉흥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주식시장에 따른 불거피하다. 1937년 대공황 때와 같은 상황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그린스펀·버냉키 전 연준 의장 재직당시 美 기준금리

그린스펀 (1987년 8월~2006년 1월)

(단위: %)

4.5

버냉키 (2006년 2월~2014년 1월)

(단위: %)

0.25

주요 의사결정

그린스펀 (1987년 8월~2006년 1월)

- 1987년 10월 '검은 월요일' 발생하자 공개시장 조작 등 통해 유동성 대규모 공급
- 1994년 인플레이션 우려, 1년간 기준금리 6차례나 인상
- 2001년 닷컴버블 붕괴하자 2003년까지 금리 인하
- 2000년 말 6.5%였던 기준금리 2003년 6월 1.0%까지 낮춰
- 2004년 금리인상 시작해 1%였던 금리 사인 당시인
- 2006년 1월 4.5%까지 높아져
- 그러나 국제 금리는 한때 떨어지기까지 해 '그린스펀 수수께끼' 용어 등장도

버냉키 (2006년 2월~2014년 1월)

- 2006년 기준금리 5.25%까지 인상
- 2007년 금리인하 시작
- 2008년 8000억 달러 규모 MBS 매입정책 발표
- 기준금리 0~0.25%로 인하, 현재까지 유지
- 2009년 1차 양적완화 발표
- 2010년 3월 1차 양적완화 종료, 11월 2차 양적완화 실시
- 2011년 8월 2차 양적완화 종료, 9월 오피레이션 트루스 결정
- 2012년 9월 3차 양적완화 실시
- 2013년 5월 양적완화 점진적 축소 '테이퍼링' 언급해 '긴축발작' 유발 12월 테이퍼링 착수

긴축정책으로 세계경제 흔들어... 역사는 되풀이될까

美 연준 금리인상 전망에 그린스펀·버냉키 전 의장 재조명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내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초긴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이후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악몽이 재연될까 우려하는 것. 중앙은행이 너무 일찍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내리면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

연준의 역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금리 조정이나 통화정책 변화 시점을 놓고 금융시장에 파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린스펀은 지난 1987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약 18년간 연준 의장을 맡으며 1990년대 미국 경제호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그린스펀의 말과 움직임 하나하나에 세계 경제가 움직인다는 '그린스펀 효과'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또 그린스펀은 임기 중 두 차례나 금융시장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한 뛰어난 연준 의장이었다. 의장으로

임명된 첫째 일어난 '검은 월요일'과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 등에 맞서 돈을 적극적으로 푸는 저금리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그는 1994년 이른바 '그린스펀 쇼크'로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연준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자 1991년 이후 무려 17개월간 기준금리를 3%로 유지하다가 1994년 2월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같은 해에 총 여섯 차례에 걸쳐 5.5%로 높였다. 이후 미국 경제와 주가가 급락하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캘리포니아주 오크리지카운티가 파산하고 멕시코 외환위기를 유발했다.

'그린스펀의 수수께끼(Greenspan conundrum)'라는 말은 금리인상 등 중앙은행의 긴축이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한 변수들에 의해 움직이는지 시사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 2004년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지만 시장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그 후 3년간 기준금리가 3.75%포인트 인상됐지만 미국 국제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 상승폭은 0.2~0.3%포인트에 그쳤다. 이에 그린스펀은 지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1994년 금리인상에 멕시코 외환위기
2004년에도 올렸으나 시장금리는 ↓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번져

버냉키의 긴축발작

대공황 전문가답게 과감하게 돈 풀어
세차례 양적완화 세계경제 위기 구해
테이퍼링 시사 '취약5개국' 경기 급랭

2005년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현상을 '수수께끼'로 표현했다.

원인은 중국 등 신흥국들이었다. 수출 호황으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던 신흥국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아 시장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이다. 이는 부동산 거품을 촉발해 결국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졌다.

버냉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례 없는 3차례의 대규모 양적완화와 '제로(0)'금리 정책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를 대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이제 연준은 양적완화를 종료한 상태이며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의 길을 밟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버냉키도 지난 2013년 5월, 단계적 양적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신흥국 통화가치와 주식, 채권 가치가 일제히 급락하는 '긴축발작(taper tantrum)'을 유발했다. 이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얼마나 연준의 움직임에 민감한지를 확인시켜준 것이다. '긴축발작' 여파로 당시 '취약 5개국(fragile 5)'으로 불리던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그해 연말까지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달러화 대

비 자국통화 가치가 최대 30%까지 떨어지는 위기를 겪었다.

그린스펀은 지난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또 다른 '긴축발작'이 올 것"이라며 "통화 정상화는 훌륭하나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재닛 옐런 현 의장은 자신과 버냉키처럼 긴축으로 세계 경제에 한바탕 파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그린스펀과 버냉키는 통화정책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그린스펀은 시장에 위기가 터지면 바로 요구하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순환해서 실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썼다. 반면 대공황 전문가인 버냉키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린스펀은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고 나서 이후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화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꺼렸던 전임자와 달리 버냉키는 1년에 네 차례의 연준 의장 기자회견을 정례화하는 등 소통에 힘썼으나 오히려 자신의 발언을 놓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작용을 안게 됐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살린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의 독심

금리 20%까지 올려 물가 잡고 고도성장 발판

(1981년)

(1990년대)

폴 볼커는 지미 카터와 로널드 레이건 정권기인 1979~1987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맡으면서 사상 유례없는 독심을 발휘해 미국 경제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로 인해 치솟은 물가와 싸우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명성을 얻게 됐다. 그가 연준 의장에 취임했던 해 미국 기준금리는 평균 11.2%였으나 최고치를 찍었던 1981년에는 무려 20%에 이르게 됐다. 물가를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다.

볼커가 금리를 올리기에 쉬운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 미국 경제는 당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볼커가 금리인상으로 물가 잡기를 선택하면서 1979년 13.3%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율은 1983년 3.2%로 떨어졌다. 그 대가로 볼커는 혹독한 경기침체에 따른 비난세례에 시달려야 했다. 미국 실업률은 10% 수준으로 치솟았고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경제는 1년 이상 위축됐다.

1982년 긴축정책이 끝나고 나서야 미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할 수 있었다. 그가 1980년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성공하면서 미국 경제는 1990년대 물가 안정 속에 고도성장하는 사상 최대 호황기를 맞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물가 전념
혹독한 경기침체에 살해 위협도
"20세기 최고 중앙은행 총재" 평가

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볼커는 재직 중에 권총을 품에 지니고 다녀야 할 정도로 온갖 시위와 살해 위협까지 받았으나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한 독심은 인정을 받게 됐다. 독일 경제학자인 헨리 카우프만은 "볼커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 총재"라고 칭송했다.

대표적인 연준 비판론자인 론 폴 전 미국 연방하원도 볼커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하원 금융위원회에 있었을 당시 아서 번스와 윌리엄 밀러, 볼커 등 연준 의장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며 "가장 많이 교류한 것은 볼커였다. 그는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를 포함해 어떤 연준 의장 가운데에서도 가장 품위 있고 현명하다"는 찬사를 보냈다.

일본은행(BOJ)은 현재 디스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볼커와 전혀 다른 행보를 걷는 것이나 구모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지난 3월 한 연설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방식을 바꾼 전례로 볼커가 있다"며 "볼커는 정치와 사회적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인플레이션 기대를 바꾸기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볼커의 독심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미다.

볼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주목을 받았다. 바락 오바마가 지난 2008년 11월 대통령에 당선되자 백악관 경제회복차무위원회 의장을 맡아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주범으로 꼽힌 대형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한 '볼커 룰'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월가에서 지나친 규제에 금융산업이 고사할 것이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이에 굴하지 않은 것으로 '파이터'다운 면모를 다시 과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 美 금리인상 대응법

경기 악재 드리우자 선제 금리인하

"문순·유가·연준 움직임 경기 위협"
7.25%로... 올 들어 세번째 금리내려
신흥국의 모범... 추가 인하도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신흥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라구람 라잔 인도중앙은행(RBI) 총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RBI는 경기부양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RBI는 지난 2월(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종전 7.5%에서 7.25%로 인하했다. 올 들어 세 번째 금리인하다.

RBI는 폭염과 앞으로 다가올 문순(우기) 등 기상 악화에 경기회복이 느려진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 악재가 다가오자 선제 조치에 나섰다.

라잔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 때문에 RBI의 움직임은 신흥국들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5월 TV방송 인디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의 경제 회복세가 매우 약하다"며 "RBI는 추가 금리인하 여지를 닫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도의 경제 성장세를 위협할 3가지 요인으로 문순과 국제유가, 연준의 움직임 등을 꼽으면서 "1분기 미국의 경제 부진에 연준이 긴축을 연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힘들겠지만 연준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좋겠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시장이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인도는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잔 총재는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역임하면서 지난 2003~2007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겸임했다. 그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호황으로 온갖 찬사를 받던 2005년 "금융 부문이 더 많은 이익 창출을 추구하고자 리스크를 떠 안고 있다"며 "이는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 세계 경제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로런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라잔은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를 벌였던 영국 노동자들'과 같다"며 "그의 경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역사는 결국 라잔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

라잔은 지난 2012년 인도 정부 수석 경제자문으로 뽑혔으며 지난 2013년 두부리 수바라오의 뒤를 이어 RBI 총재로 취임했다. 영국 금융전문매체 유로머니는 그를 "2014년 최고 중앙은행 총재"로 꼽으면서 오는 2016년 임기가 끝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뒤를 이을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나의 펫과 '스마트한 교감'

원격카메라·자동배급기·헬스워치...집밖에서도 안심



위쪽부터 고양이 사료 자동배급기인 '비스트로', 와이파이 기능 탑재한 원격 카메라 '펫큐브 카메라', '펫큐브 카메라'가 애플워치에 연동된 모습. 사진제공 각사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이 집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럴수록 동물은 인간과의 교감이 부족해져 의기소침해지거나 활동량 부족으로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착안해 하드웨어와 응용프로그램(앱)을 이용한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보기술(IT)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웰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인 '펫큐브(Petcube)'는 반려동물과 떨어져 있을 때도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IT 기기를 개발했다. 펫큐브의 대표 상품인 '펫큐브 카메라'는 주인이 원격 카메라를 통해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살피고 대화하며 심지어 놀아주기 기능까지 갖춘 제품이다. 와이파이(Wifi) 기능을 탑재한 광각 카메라인 이 제품은 펫큐브의 iOS,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모토로라의 '스카우트 모니터'와는 달리 펫큐브 카메라는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레이저 포인터가 있어 주인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움직이게 해 외부에서도 자신의 반려동물과 놀아줄 수 있게 했다. 지난 2013년에 출시된 모토로라의 스카우트 모니터는 주인이 외부에 있을 때 반려동물을 지켜볼 수 있는 제품으로 카메라가 집안의

동물을 촬영한 영상을 PC나 스마트폰 등에서 확대 볼 수 있게 했다.

아로슬라브 아즈누크 펫큐브 최고경영자(CEO)는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나 베스트바이, 펫코, 펫 스마트 스토어 등 IT 기기 혹은 펫용품 관련 매장에서 우리 제품을 파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전략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에서도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운동량과 칼로리 소모량을 체크하는 SK텔레콤의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 '펫핏(Petfit)'이 출시된 바 있다. 대만에서는 고양이의 얼굴을 인식해 식습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료 자동배급기인 '비스트로(Bistro)'가 내년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의 제라드 페르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미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하나로, 그 미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자동급식기 이외에 펫용품 분야에서의 IT 기기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웨어러블, 스마트 홈 기기 등을 통해 반려동물과 주인 간의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기기들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미국 펫산업 전망

단위: 달러 ※출처: BCC리서치

	2015년(추정치)	2020년(추정치)	연간 성장률
펫케어	614억	694억	2.50%
펫푸드	237억	270억	2.70%
펫용품	148억	174억	3.30%

고급사료·털 미용... '펫 팔자가 상팔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2010년대부터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동물(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펫팬족'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펫팬족은 애완동물(pet)과 가족(family)의 합성어로 애완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강아지, 고양이 등 살아있는 생명체를 장난감처럼 취급한다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며 일부 애견인, 애묘인들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작년 미선 560억달러 소비
2020년 700억달러 달할듯
푸드·용품 등 다양한 산업군
'케어' 年2.5% 가파른 성장세
2018년 의료시장 100억달러

주요 산업으로 분류했다. 지난 2010년보다 도·소매업체, 서비스업체 등 펫산업에 관심을 두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등 펫산업은 미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펫산업이 향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펫케어(Pet Care)' 시장이 펫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4년 펫케어 시장의 규모는 약 564억 달러(약 63조1792억원)에 달했고, 올해에는 614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2020년까지 연간 2.5%씩 성장해 규모는 69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펫 산업'은 각국의 주요 시장으로 급부상 중이다.

한국펫산업협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한국의 펫산업 시장 규모는 최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매년 1인 가구와 노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애완동물 시장 규모 역시 15~20%씩 성장하며 2020년에는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펫산업은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미국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BCC리서치는 '미국 펫산업 분석 및 2020년까지의 전망'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강아지와 고양이에 국한됐던 애완동물의 범위가 새·물고기·소형 포유류·파충류 등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 미국인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해 560억 달러(약 62조1600억원)를 소비했고, 오는 2020년에는 약 700억 달러를 쓸 것으로 전망된다.

BCC리서치는 펫산업이 펫푸드(사료·간식), 펫케어 서비스, 펫용품 등 다양하며 미국 경제의

앞서 미국 애완동물산업협회(APPA)의 발 테레 최고경영자(CEO)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점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가 산업 전반에서 가장 강력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패키지팩트도 오는 2018년까지 펫 의료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며 펫케어 분야의 성장을 예상했다.

반려동물을 거느린 것이 부의 상징이 된 중국에서도 펫케어 산업은 낙관적이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중국의 펫케어 시장이 2019년까지 29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미국보다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 사료, 간식 등 미국 펫푸드 시장은 올해 237억 달러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270억 달러에 달해 시장 규모가 연간 2.7%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펫용품 시장은 2020년에는 174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연간 3.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중국 선전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는 강아지(왼쪽)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펫 페스티벌에 참가한 반려동물과 주인들. 신화/뉴스-올랜드워클리

비타민하우스

내 몸속의 혈액이 흐르는 수도관, 혈압의 건강한 관리!

비타민하우스의 코엔자임NatQ는
항산화 ·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Q10 100 mg
나토키나제 2,000 FU (부원료)

코엔자임NatQ 450 mg X 60 캡슐 소비자가격 50,000원(2개월분)

하루 한캡슐로! 1.2편하게 100mg의 코엔자임Q10 섭취! 2.나토키나제 2,000FU (부원료) 섭취!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식품코너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1588-8529



MARVEL

케빈 파이기
마블 스튜디오 CEO

마블의 오늘까지...

- 1939년 최초 상호명 '타임리 코믹스'로 창립
'마블 코믹스 1' 출시, 최초 캐릭터 '휴먼 토치' 등장
- 1961년 '마블 코믹스'로 상호명 변경
- 1968년 창립자 마틴 구텐, 마블 코믹스를 '카덴스 인터스트리'에 매각
- 1986년 카덴스 인터스트리 파업으로 마블 코믹스 뉴월드엔터테인먼트로 다시 넘어감
- 1989년 로널드 페렐만의 투자사 '맥앤드류스앤포브스'가 마블 코믹스 매입
- 1992년 마블 코믹스, 아구 카드 제조사 '프라이어' 구입
- 1993년 마블 스튜디오 설립
- 1995년 마블 코믹스, 코믹북 배급사 '히어로즈월드' 구입
- 1996년 파산 선언(마케팅 실패, 출판업 불황)
- 2009년 월트디즈니, 40억 달러에 마블 인수



마블 제2전성기 이끈 '진정한 히어로' 케빈 파이기

올봄 전 세계 극장가는 액션·판타지 대작 '어벤져스 2' 열풍으로 뜨거웠다. 아이는 물론 나이를 잊은 어른들도 영화 속 영웅 캐릭터에 푹 빠졌고, 직장 내에서도 한동안 단골 주제는 '어벤져스2'였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등 만화 속 캐릭터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인물, 바로 마블스튜디오의 최고경영자(CEO) 케빈 파이기다. 올해 42세의 파이기 CEO는 친취적인 사고방식과 대담함으로 마블 역사에 길이 남을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영화 열정

‘백 투더 퓨처’ 베스트무비 꼽던 SF광

조지 루카스 등 거장 감독들 다녔던

영화 명문학교 서던캘리포니아대 나와

손대는 작품마다 초특급 흥행

‘아이언맨’ 과감한 캐스팅·영입 전략

‘어벤져스’로 인기 캐릭터 한데 모아

전세계 극장가 ‘히어로 열풍’ 이끌어

◇남달랐던 영화 열정...거장들이 거친 대학 톡한 '괴짜' = 1973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난 파이기는 어릴 때부터 마블의 만화를 보면서 자랐다. 파이기는 이미 10대에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인 할리우드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영화는 나의 판타지이자 나의 탈출구"라고 말할 정도였다. 미래를 미리 경험한다는 소재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백 투더 퓨처'는 파이기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였다. 파이기는 영화뿐만 아니라 마블 코믹스 속 영웅과 함께 유년시절을 보냈다.

이 같은 관심은 영화 제작자였던 할아버지의 영향

정했다. 파이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영화학과를 다녔다. 파이기는 졸업 축사를 통해 자신이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영화감독의 거장인) 조지 루카스, 조지 하워드, 로버트 제메키스가 모두 다녔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이기는 다른 학과를 택하라는 가족과 친구들의 권유를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거장들이 다녔던 곳이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파이기는 지난 영화 '볼케이노(1997년)' '유브 갓 메일(1998년)' 제작에 참여하면서 마침내 영화판에 입문했다.

◇만화 원작에 대한 애착·팬심을 아는 '쇼맨십' 제작자 = 파이기가 본격적으로 영화판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0년, 울버린 신드롬으로 히어로 영화의 돌풍을 예고한 '엑스맨1' '엑스맨2'를 제작했던 로렌 솔러 도너의 비서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엑스맨 캐릭터는 마블이 탄생시킨 캐릭터이지만 20세기 폭스가 1994년 판권을 사들였다. 파이기는 이후 마블의 전성기를 열었던 아비 아라드 전 마블 회장 겸 CEO의 눈에 띄어 아라드와 일을 하게 된다. 마블과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된 셈이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07년, 미래가 촉망됐던 대학생 파이기는 마블

스튜디오의 CEO 자리에 앉았다.

파이기는 CEO가 된 후 영화 한 편을 준비하면서 과감한 캐스팅을 시도했다. 바로 2008년 개봉했던 '아이언맨1'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주인공으로 뽑은 것.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그때까지만 해도 액션·판타지 장르보다 드라마나 로맨스로 필모그래피를 쌓았던 배우였다. 여기에 미국 드라마 '벡파이어 해결사' '엔젤' 등 방송가에서 활약하고 있던 시나리오 작가 조스 웨덴도 영입했다. 아이언맨은 전 세계 극장가를 휩쓸었고, 이 연장선으로 만든 영웅군단 영화 '어벤져스1' 역시 전 세계적으로 16억 달러(약 1조8000억원)의 흥행 수익을 올렸다. 당시 어벤져스의 흥행 성적은 '아바타' 타이타닉에 이은 역대 박스 오피스 3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었다.

전문가들은 마블이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파이기의 '쇼맨십'을 꼽았다. 파이기는 일찌감치 영화 팬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어벤져스의 레드카펫 행사를 할리우드의 유서 깊은 극장인 엘카피탄으로 정한 것도 이 같은 철학이 반영된 것. 당시 경쟁사인 DC엔터테인먼트와 워너브러더스가 영화 팬보다 평론가들에게 영화를 먼저 공개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 마케팅 전략을 펼

쳐 팬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작 파이기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앞에서는 서지 않는다. 그는 "내가 제작자여서 좋은 점은 내 시간의 99%를 무대 뒤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고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만화 원작을 충실히 영상 속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파이기의 스타일도 마블의 전성기를 이끈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 파이기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엑스맨 제작에 참여했을 당시 한 임원이 캐릭터와 장면을 더 발전시킬 수 없다고 고함을 쳤던 기억이 난다"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만화책을 읽고 있었고, 속으로 '만화책에 있는 장면 그대로만 만든다면 엄청난 것'이라고 되뇌곤 했다"고 회상했다. 원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원칙주의가 곧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어진 것이다. 웨덴은 2011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이기는 나의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어 줬다"고 했다.

최근 파이기는 공개석상에서 "마블은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영화와 마블을 아끼는 파이기의 열정에 마블의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인다.

서지희 기자 jhsseo@

마블은 어떤 회사

영웅들의 고향... 스파이더맨·엑스맨도 이곳 출신

마블은 76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1939년에 세워진 만화책 출판사 '타임리 코믹스'가 '마블 코믹스'의 전신이다. 현 '마블'이라는 상호명은 1961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TV와 영화를 제작하는 마블 스튜디오는 1993년에 설립됐다. 마블(Marvel)이 '경이로운 결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마블은 현재 영화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마블

이 있기까지 그 과정은 험난했다.

마블은 1990년대 초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만화책 '발'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창립자인 마틴 구텐이 마블을 카덴스인터스트리에 매각하면서 험난한 여정 길에 올랐다. 이후 마블은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로널드 페렐만이 이끄는 맥앤드류스앤포브스에 인수된다.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했던 마블

은 카드제조업체, 배급사 등을 잇따라 사들여 몸집을 키우려고 애썼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답답아 만화산업의 거품까지 꺼지면서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다. 마블은 결국 1996년에 파산을 선언했다.

이후 오랜 기간 침묵기를 지냈던 마블은 경쟁사인 소니 덕분에 다시 회생의 기회를 잡는 아이러니한 상

76년 전통 만화책 출판사... 93년부터 TV·영화 제작도 파산 등 위기 겪었지만 어벤져스 등 잇단 흥행으로 부활 '엔트맨'·'블랙팬서' 스크린 데뷔 앞뒀... 차기작 준비 한창

황을 맞이했다. 소니가 마블에서 판권을 사갔던 '스파이더맨(2002년)'으로 대히트를 치면서 코믹북이 다시 주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마블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그 여세를 몰아 2000년대 들어서 아이언맨(2008년)이 히트를 치면서 업계를 평정했다.

올해 '어벤져스2'를 대히트시킨 마블은 이미 미래를 준비 중이다. 오는 2039년이면 마블 탄생 100주년.

마블은 100주년을 앞두고 만화 속에서만 지냈던 일부 캐릭터를 영화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엔트맨'을 개봉한 가운데 오는 2018년에 '블랙팬서'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으로 전해졌다. 내년에는 캡틴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을 두 톱으로 내세운 '캡틴 아메리카 3', 2017년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블이 2028년까지 제작할 영화 목록을 이미 갖고 있다고 추측한다.

1만2700개에 가까운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마블. 그만큼 소재도 다양하고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마블이 나아갈 행보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별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 제품문의: 02) 3676-1100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록 삭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신한투자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 3년만에 설정액 3조
증권업종 '비중 확대' 유지

신한금융투자는 11일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 3년 만에 설정액 3조원을 돌파하면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며 증권업종에 대해 투자여건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형 헤지펀드는 설정액 3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월에도 2조9000억원까지 설정액이 늘었지만 하반기에 약 5000억원의 환매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대 저금리 시대에 중위험 중수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연초 이후 헤지펀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용사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이 헤지펀드 운용사 중 처음으로 설정액 1조원을 돌파하면서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했다.

브로커별로는 대우증권과 NH투자증권의 계약 규모가 각각 9758억원, 9584억원으로 전체 프라이빗브로커리지(PBS) 시장에서 65%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대우증권의 올해 PBS 부문 수익은 150억~200억원 규모로 지난해 100억원 수준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손 연구원은 "아직 3대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기간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며 "다만 최근 미국계 초크스트림 캐피털그룹과 영국계 보험사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양호한 수익률을 내다보면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내주부터 주식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거래소, 급등락株 집중 모니터링

공시-시장감시 협조체계 가동
주가급변 초기 조회공시 요구
일반투자자에게 정보 신속 전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격제한폭의 확대 시행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평소 일 중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가, 거래량 등 거래 상황 및 사이버 게시물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 종목에 불균형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화할 예정이다.

제한폭 확대 후 주가나 거래량이 실제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시-시장감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상장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해 중요 정보 발생 여부를 신속히 일반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통상 5일간의 주가 흐름에 따

라 조회공시를 요구하나, 급격한 주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 5일 이전이라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종목 중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주가 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클 경우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후 특별한 호(악)재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매매할 경우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투자 전에 반드시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매매에 참여하라"고 당부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모닝스타 "한국 펀드시장 A등급"

'글로벌 펀드 투자 체험보고서' 관련 법규 빠른 개정 높은 점수
관계사 펀드판매관행은 아쉬워

투자 리서치 회사 모닝스타는 올해 '글로벌 펀드투자 체험보고서'에서 한국이 A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펀드투자 체험보고서는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25개국에 대한 펀드투자자의 평가가 담겨 있다. 2년마다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2013년 한국은 B+등급이었다.

조사는 25개 시장을 규제 및 과세, 공시, 보수와 수수료, 판매 및 미디어 등 4개 범주로 나눠 A, B, C, D 등 성적을 매기고 이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감독당국이 적극적인 펀드 정책을 펼수록, 투자자가 부담하는 과세 수준과 펀드 보수가 낮을수록, 펀드 판매 시스템이 다양하고 미디어가 펀드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될수록 높은 등급이 나온다.

올해 조사에서 한국은 미국, 네덜란드, 대만과 함께 A등급을 받아 투자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시장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규제 및 과세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보수와 수수료 부문에서는 B+

를 받았다. 공시와 판매 및 미디어 부문에서는 B를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펀드 관련 법규가 때에 맞게 개정되고 펀드 보수와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공시된다는 점,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의 낮은 보수와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반면 펀드 포트폴리오 상위 보유 10개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대형 금융회사가 관계사 펀드를 편향적으로 판매하는 관행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중국은 종합평가에서 D+ 점수에 그쳐 25개국 중 투자자에게 가장 비우호적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보수가 높고 해외투자 및 외국에 설정된 펀드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정다운 기자 gamja@

런던 '국제파생상품엑스포'에서 KRX 파생상품 알린다

한국거래소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FIA/FIA Europe 국제파생상품엑스포'에 참가해 KRX 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거래소의 주력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을 위해 CME 및 Eurex 등과의 연계도 모색한다.

이번 엑스포는 전 세계 거래소, 기관투자

자, 브로커 등 200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유럽지역 최대 파생상품 업계 행사다. 규제개혁 동향, 청산 비즈니스 및 거래 인프라의 발전 등이 주제다.

행사 개최자인 영국 런던은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밀집된 곳으로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마케팅 핵심 지역이다. 거래소는 외국인 거래 규모 상위 4개 지역(영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을 마케팅 핵심 지역으로 선정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시장에 참여 가능한 잠재 고객군을 적극 발굴해 해외 시장 참가 기반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엑스포 내 홍보부스 운영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역대 5월 부동산 펀드 설정규모 추이

연도	2008년 5월	2009년 5월	2010년 5월	2011년 5월	2012년 5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2015년 5월
설정건수(건)	30	10	8	9	9	20	10	22
설정금액(억원)	8,834	2,320	1,276	5,296	1,647	3,563	1,329	5,051

부동산 뜨니, 부동산 펀드도...

5월 신규설정 22건·5051억

2008년 금융위기 후 최고치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침체됐던 부동산 펀드 신규 등록 건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종합부동산서비스업체 제스타에 따르면 5월 신규로 설정된 부동산펀드(REF)는 22건으로 총 505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584% 대폭 증감한 수치이며, 최근 10년간 5월 기준 최고 수준에 근접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펀드가 하반기 11-12월에 집중적으로 설정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상반기의 5월 수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부동산펀드 신규 등록 건수(5월 기준)는 지난 2008년(30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09년(10건) △2010년(8건) △2011년(9건) △2012년(9건) △2013년(20건) △2014년(10건) 등 20건을 넘는 적이 없었다.

올해 부동산 펀드가 붐몰이 이루는 현상과 관련 송기욱 제스타 선임연구원은 "신규공급 물량과 우량 투자물건이 감소하면서 예전보다 실물자산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성이 적은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채권) 등에 눈을 돌려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분간 MBS, ABCP 등과 같은 전통적인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IBK투자증권, 최고 연 7.2% 수익 ELS 공모



IBK투자증권이 10~12일 추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사채(ELB)를 공모한다. 'IBK투자증권 제1636회 ELS'는 KOSPI200,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한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3년 만기에 연 7.2%(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IBK투자증권 제535회 ELB'는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1년 만기에 최고 연 4.5%(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번 ELS, ELB 상품은 1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12일 오전 11시까지 접수한다.

사천지문 IBK투자증권

노후 돈 걱정 안하려면 배당가치주를 담아라!

삼원금천비록

부자아빠가 읽어주는 삼원금천비록

주식투자 시크릿

경제적 자유를 위한 주식투자 시크릿

YouTube **부자아빠 주식학교** 검색

www.facebook.com/88tv2788

대표전화: 1661-2788



의료기기·스마트폰 센서... 파트론, 신사업 시동

압력센서 스마트폰 업체 공급 협의중...온도센서도 개발 '갤S6' '아이폰' 무선충전기 출시... 2분기 실적개선 예상

파트론이 의료기기 센서 모듈과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신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는 전체 매출의 5% 정도를 신사업에서 올리고, 내년 이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11일 파트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와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 모듈을 대기업 등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이미 공급을 시작했다.

압력센서는 MEMS 타입 개발을 완료하고 스마트폰 업체와 공급 협의 중이다. 이 제품은 IP57(방수/방진) 규격을 갖췄으며, 습도 측정 등 기능 추가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 온도센서는 세계 최초 초소형 SMD 타입 비접촉 방식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마이크로폰과 지문인식 모듈은 전자업체에 양산 공급 중이다. 이 외에 PPG센서, UV센서 등도 스마트폰 제조사와 탑재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

한 다양한 IT 기기 및 의료기기 등에 탑재할 수 있다. 삼성을 필두로 국내 대기업이 의료기기 시장에 뛰어들자 이 시장의 부품 수요를 잡고자 선제적인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 3284억 달러이며, 오는 2018년엔 4546억 달러로 연평균 6.7%의 고성장이 전망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센서 분야 사업을 헬스케어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트론은 ICT브랜드 크로이스를 통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갤럭시S6, S6엣지, 아이폰 등에 호환되는 무선충전기를 국내 출시했다. 지난해 말에는 블루투스 헤드셋도 선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파트론의 주요 부품이 대부분 탑재된 제품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자체 센서를 활용한 스타일러스 펜, 스포츠



밴드 등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파트론에 대해 "생각보다 양호한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6 덕분에 오는 2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현용 연구원은 "실적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카메라모듈이 반등해 오는 2분기부터 실적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설정진 기자 skj78@

로엔, FNC엔터 지분 5.14% 취득 '한류 맞손'

시너지 창출 위해 상호 협력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사인 FNC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의 5.14%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씨엔블루, FT ISLAND, AOA, 엔플라잉 등의 가수과 배

우이동진, 정우, 이다해, 정우, 박광현, 윤진서 등이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로엔과 FNC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향후 양사 사업간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로엔은 음악 서비스플랫폼, 콘텐츠 투자와 유통,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등 음악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기업으로 최

근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레이블 간 '따로 또 같이' 체제를 통해 각 레이블의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K-POP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통합된 글로벌 비즈니스 체계를 통해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해 한류 확산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바이오니아, 에이즈 진단키트 허가... 분자진단 시장 첫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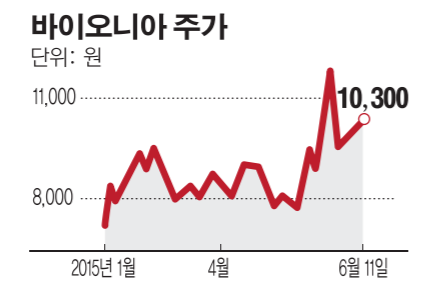
파나마 보건부 의료기기 등록

내년 시장규모 1조7000억 추정

바이오니아가 실시간 유전자 증폭(real-time PCR)를 이용해 에이즈(AIDS) 환자의 혈장에서 HIV-1 바이러스를 정량 검출하는 HIV-1 진단키트를 포함해 결핵, 성매개 감염증 등 11종 진단키트에 대해 파나마 보건부의 의료기기 허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계 분자진단 시장 규모는 2021년 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중 에이즈(HIV-1) 분자진단키트는 단일품목으로는 한헬스크리닝검사를 제외하고 가장 큰 품목으로 2016년 시장규모가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니아는 에이즈(HIV-1) 진단키트 및 분자진단기기 허가 등록을 위해서 파나마 보건부 지정병원에서 HIV-1



환자의 임상검체를 사용해 기존의 허가를 받은 다국적기업의 진단제품과 비교평가를 통해 자체개발한 진단키트와 진단장비인 엑시스테이션(ExiStation™)의 성능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다.

이에 바이오니아는 지난 3, 4분기에 걸쳐 임상평가를 성공리에 마치고, 최근 허가 등록을 완료했다.

바이오니아는 작년에도 중국의 2곳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HIV-1) 진단 성능 평가를 마치고 등록신청해 올해 3분기 허가 등록을 앞두고 있다.

한편 바이오니아는 파나마에서의 허가 등록을 계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파나마 현지에서 론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파나마 보건부의 에이즈 및 성병 퇴치 국가프로그램 책임자인 아우렐리오 마틴 박사를 비롯, 파나마 보건부 산하 등록청 관계자, 파나마 주요병원인 파나마 보건소, 델 니노 병원 Hospital del Nino, 산토 토마스 병원 Hospital Santo Tomas 등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진행했다.

세미나의 연사로 나선 델 니노 병원의 라몬 핀손 연구원과 파나마 보건소의 알렉시스 솔리스감사장은 직접 평가한 바이오니아의 분자진단시스템과 결핵, 성병 진단 키트에 대한 결과 보고에서 우수한 제품성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이번 허가 등록을 통해 중미 및 남미 국가에서 진행중인 에이즈 및 성병퇴치 프로그램 참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정진 기자 skj78@

씨유메디칼, 유증 일정 2달 연기

클리브랜드 대상... 8월20일로

씨유메디칼시스템은 클리브랜드 하트 인터내셔널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이 이달 10일에서 오는 8월20일로 변경됐다고 11일 밝혔다.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건이 양사에 중요성이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 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상

증자 외에 구주 매각 건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클리브랜드 하트의 투자 자문사인 웨스트베리 그룹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씨유메디칼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자제안서(CIM)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또한 유상증자 건과는 별도로 씨유메디칼의 미국 심장제동기 시장 진출을 위한 양사간 협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 씨유메디칼 AED(제품명 NF1200)는 클리브랜드 하트의 로고를 달고 미국 전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씨유메디칼의 NF1200 제품은 2008년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거대 시장인 북미지역 진출은 물론 중남미 지역의 추가 매출 확대에도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씨유메디칼은 인공심장 외에 클리브랜드 하트가 보유한 고부가가치 심혈관계 제품인 심박장동기(Pace Maker), ICD(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s) 등 전 제품에 대한 제조 및 생산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개발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공시 돋보기

생산공장 늘리는 피에스텍 "내년 매출 60% 증가 전망"

37억5000만원 투자...11월 완공 금형 카운터기 등 생산 극대화

피에스텍이 공장 신축을 통한 캐파(생산능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캐파증설을 통해 연간 생산규모가 60%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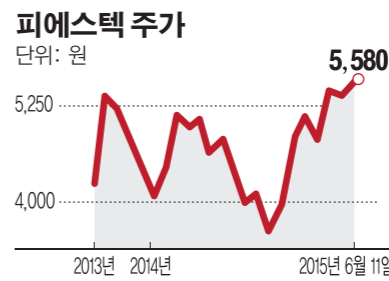
11일 피에스텍은 공장신축을 위해 37억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비율 3.4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설 공장은 오는 11월 중 완공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이번 공장 신축을 통해 금형카운터기, 수도미터 등 기존제품 생산능력 극대화를 통한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신제품 생산시설 확대를 통한 신규시장 진입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장 신설이 완료될 경우 현재 연간 430억원에 이르는 매출 규모가 최대 60% 이상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에스텍은 전력공급에 대한 각종 계량·계측기기 및 원격검침시스템 사업과 팬 모터, 와이퍼 모터 등 자동차용 소형모터 제조하는 업체다.

문선영 기자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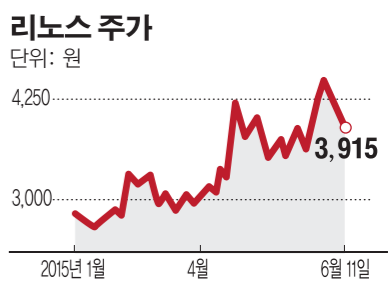
특히 최근에는 전력기기 사업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효율적 요금관리를 위해 AMR System용 Digital EM 관리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Digital EM 부문을 중심으로 전력기기가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에스텍은 현재 기존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가스미터, 열량계, 수도미터, 온수미터 등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AMR 시스템과 탄기방식으로 납품하고 있다.

AMR 시스템은 고급빌라, 아파트, 갑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장 신설이 완료될 경우 현재 연간 430억원에 이르는 매출 규모가 최대 60% 이상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에스텍은 전력공급에 대한 각종 계량·계측기기 및 원격검침시스템 사업과 팬 모터, 와이퍼 모터 등 자동차용 소형모터 제조하는 업체다.

문선영 기자 moon@



리노스, 자회사 매각

드림씨아이에스지분 中 회사에

리노스가 중국 최대의 CRO 회사 HONGKONG TIGERMED., LIMITED(이하 타이거메드)와 약 270억원 규모의 드림씨아이에스 지분 매각에 대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르면 리노스가 지난해 3월 131억원에 인수한 드림씨아이에스 지분 전량(70%, 7만415주)을 타이거메드에 매각한다. 이어 실사를 거쳐 6월내 정식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밝혀졌다.

타이거메드는 중국 최대의 CRO 회사(중국내 점유율 1위)로 글로벌 제약사의 중국 용역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등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편 리노스의 자회사인 드림씨아이에스는 제약사의 신약개발에 참여해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제약 및 바이오 임상서비스 부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전문기관) 업계 내 시장점유율(M/S) 1위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로 2014년 매출 규모는 183억 수준이다. 설정진 기자 skj78@

최대주주 바뀐 네오아레나 박진환 대표 '게임' 위해 잔류

주식·경영권 박종희씨에 양도 당분간 회사에 남아 사업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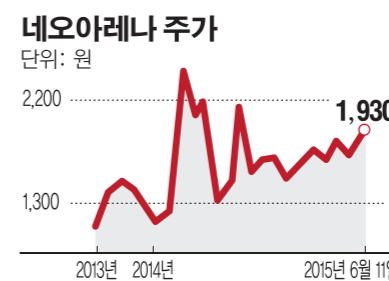
네오아레나 주가

네오아레나의 최대주주변경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됐다. 중국업체나 게임업체 대부의 손에 지분이 매각될 것이라 예상과 달리 전업투자자가 네오아레나의 고배를 겪게됐다. 박진환 대표가 회사에 잔류해 게임 사업을 진두지휘한다. 이에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오아레나는 기존 최대주주인 박진환 대표(5.95%)가 보유중이던 주식 275만주(5.54%)와 경영권을 박종희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1주당 가격은 3454원으로 총 양수도 대금은 95억원이다. 최대주주 변경예정일은 7월 24일이다.

네오아레나는 박진환 대표가 지난 2013년 티모이엔엠을 인수해 사명을 바꾸며 게임업체로 변신했다. 티모이엔엠 인수 당시 박 대표는 오션인터랙티브와 제이피어드바이저와 각각 200만주와 100만주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또 별도 유상증자를 통해 275만주, 후에 추가적으로 제이피어드바이저에 45만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면서 박진환 대표의 지분율은 14.85%에서 5.95%로 감소했다.

박 대표의 지분율이 낮아지며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루머



가 돌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률 전 그라비티 회장(현 싸이칸홀딩스)이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자 회사 측은 "대표이사의 경영권과 관련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후에도 모바일 게임 '베나토르'의 중국 출시를 앞두고 중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경영권 양도 받은 박종희씨는 전업투자자로 알려졌다.

앞서 박종희씨는 이필름(현 아이디)의 워런트 249만1280주(9.42%)를 보유하다가 매각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박종희씨가 동일인물일 경우 대형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분을 전량매도 했지만 네오아레나가 박진환이라는 브랜드로 주목을 받은 만큼 일정기간 회사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오아레나 측은 "박종희씨에 대해 파악중이지만 게임과 관련된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권이 양도됐지만 박진환 대표는 그대로 남아 기존 모바일 게임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현 기자 yhssoo@

네패스, 中 법인서 WLP 양산

2000평 규모 생산라인 건립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 네패스가 중국 현지 법인 장수네패스의 라인 셋업을 마치고 WLP(웨이퍼 레벨패키징)양산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네패스는 2014년 중국 화이안시, 공업개발원구와 합작법인 '장수네패스'를 설립해 1년 동안 공장 건립, 라인셋업, 엔지니어 교육 등 생산준비를 해왔다. 건설된 클린룸은 약 2000평 규모이며, 올초 양산 캐파는 월 3만장 수준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LCD용 IC칩 패키징의 시장산

중에 있으며 8인치, 12인치 라인에서도 현지 디자인하우스 및 협력업체를 통해 물량은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다. 중국 현지에서 양산 검증 후 본격적인 생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스마트폰 업체와 패널업체들의 점유 확대에 따라 하이실리콘, 스프레드트럼, 랩틱 등과 같은 비메모리 팹리스 업체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 이번 완공된 공장은 중국이 주로 대만 등 해외에 의존하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공장이다. 중국의 반도체 내수진전 정책에 따라 현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록 기자 syr@



2015년은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이제는 듀얼에어컨 시대



두 개의 에어컨으로 강하게

강력함을 원할 땐 두 개의 에어컨으로
| 듀얼 파워 냉방 |

하나의 에어컨으로 절전

절전이 필요할 땐 하나의 에어컨으로
| 듀얼 절전 냉방 |

두 개의 에어컨을 따로 따로

원하는 바람이 다를 땐 두 개의 에어컨을 따로 따로
| 듀얼 맞춤 냉방 |

한 개의 에어컨이 가진 한계를 넘기 위해 후선이 시작합니다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마침내 듀얼에어컨 시대를 열었습니다

LG WHISEN 듀얼에어컨